

定慧社

불기 2548년 겨울 | 제30호



교수논단 성불의 현대적 의미
정혜탐방 파계사 영산율원장 여산 철우如山哲牛스님
특별대담 목우선원 명상상담원장 인경스님
학인기고 三要와 衲子十病을 통하여 본 禪要
몽산범어(영역)5
바람을 메고 금강산 신계사를 다녀와서

송광사 전통강원

托鉢



부처님 당시부터 탁발托鉢은 수행자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탁발은 산스크리트어 pindapatad의 음역인 빈다파다에서 나왔다. 발우를 들고 시중에서 음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불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출가 사문의 생활수단이였다. 부처님의 제자를 일컫는 '비구比丘'라는 말도 밥을 얻어먹으며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탁발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다. 걸식을 통해 수행자는 자신을 낮추게 되고,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은 보시의 공덕을 짓는다. 출가 수행자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매매활동도 할 수 없었다. 전적으로 재가자의 보시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재가자의 여러 보시 중에서도 음식보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출가자에 대한 공양은 공덕의 복전福田이 된다고 했다.

탁발은 엄격한 법식과 금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스님들의 엄격한 수행법에 대해 정해놓은 12두타행 頭陀行 중 상행걸식常行乞食, 차제걸식次第乞食, 수일식법受一食法은 탁발에 관한 것이다. 즉, 항상 걸식하여 먹을 것을 해결할 것과 걸식할 때는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가리지 않고 차례로 할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것 등이다. 또 칠가식七家食이라 하여 밥을 빌 때는 일곱 집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번 갔던 집을 다시 찾아가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다.

『사분율』을 보면 비구들의 탁발위의를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한번만 밥을 주는 곳에서 지나치게 받지 말라, 받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라, 좋은 음식을 구하지 말라, 차례차례 걸식할 것이며, 강제로 행하지 말라”는 등의 규정이 『사분율』 전 장에 걸쳐 자세하고 풍부하게 나와 있다. 그만큼 탁발이 부처님 당시에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말해준다.

『유마경維摩經』〈제자품弟子品〉에 이르기를,
“걸식은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대로 해야 한다. 걸식은 식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분별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하여 모든 것이 꼭두각시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걸식한 밥은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부처와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 먹어야 남의 보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도 해탈에 들고, 집착을 끊지 않고서도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로지 좋아하고 싫어함을 멀리하면 흰히 밝아진다고 하였던가. 일체 경계에 떠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대자대비 마음으로 부처 중생 한자리에 관觀하며 나고 죽는 속세의 업식을 녹이기에 탁발 수행도 일임한다 하겠다.

‘나’로서 죽는, 아상我相을 녹이는 선방편이라면 그 정신을 되살려 오늘날 수행납자들의 본분사本分事를 돈독敦篤히 해야 할 것이다.

定慧社

불기 2548년 겨울호 | 통권 제30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갑신년 동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 6 교수논단
성불의 현대적 의미 | 원경
- 12 기획연재
송광사 산내암지와 국사탑 - 자정암지
- 15 지대방 이야기
출가 이전 | 자각
하심 | 청사
남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지 말자 | 혜강
내 안의 허물 | 지월
석굴암 | 연옥
- 20 정혜탐방
파계사 영산율원장 여산 철우如山哲牛스님
- 26 목우만평
아상 | 유신
- 28 목우단상
너무도 소중한 삶 | 범공
사물함 | 승범
참회와 청정수행 | 불각
- 32 특별대담
목우선원 명상상담원장 인경스님(5회 동문)
- 36 경전 한 구절
구업口業
- 37 바람소리 한 자락
백양사 강주스님을 친견하고 | 지운
상생죽필문 | 인범
- 40 시가 있는 풍경
지장보살 | 일웅
석양 | 해동
선우 | 인궁
- 43 학인기고
三要와 衲子十病을 통하여 본 禪要 | 혜명
몽산법어(영역)5 | 해안
- 49 바람을 메고
금강산 신계사를 다녀와서 | 혜덕
- 51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 55 소년소녀가장 후원안내
-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금년 처음 개최되는
불교문화축제에서 국사전에 모셔진
16국사의 영정을
이운移運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조계총림의 전통을 살려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잇는
동량棟梁이 되고자 마음을 다져봅니다.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정공(입승)
편집장 | 혜명
편집 | 인궁·승범
사진 | 혜명·인궁

발행일 | 불기 2549년(서기 2005) 2월 20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가획 062) 225-8825



송광사 율원에서 바라본 설경

歸來洗足上狀睡
因重不知山月移
隔林幽鳥忽喚醒
一團紅日掛松枝

글 | 석옥청공石屋清珙(1272~1352)·사진 | 편집실



송광사 대웅전 앞 사자상

돌아와서 발을 씻고 잠이 든 채로
달이 옮겨 가는 줄도 미처 알지 못했네.
숲 속의 새 우짖는 소리에 문득 눈 떠보니
한 덩이 붉은 해가 솔가지에 걸렸네.

석옥청공石屋淸珙(1272~1352) 남송말南宋末 원대元代 스님. 임제종 호구파虎丘派. 석옥은 자, 속성은 온溫씨. 강소성 소주蘇州 상숙常熟 출신. 소주蘇州 흥교興教 송복사崇福寺의 영유永惟에게 출가하여 20세에 삭발하고, 23세에 구족계를 받음. 고봉원묘高峰原妙에게 참구. 금암종신及庵宗信에게서 득법함. 지정至正 초 (1341년경)에 황후가 금란의金欄衣를 하사함. 지정 12년 7월 23일 입적. 원조元祖가 불자혜조佛慈慧照 선사라는 시호를 내림. 석옥공선사어록石屋珙禪師語錄 2권이 현존함. 고려 말에 태고보우太古普愚가 그의 법을 전해옴.

방장스님 범어

갑신년甲申年 동안거 결제 범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裁斷有無中間하여
自孤脫體하니
無依活卓卓이요.
霽虛廓淨絶方隅로다.

있고 없고 그 사이를 함께 끊어서
저 홀로 온전히 몸을 벗으니
기델 일 없이 활발발 우뚝 솟아나
갠 허공 맑게 트이고
온갖 모서리가 무너지는 도다.

유무관을 여의고 시비장단을 끊어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의 요체입니다. 공부한다, 공부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현실적이고 요긴한 공부, 꼭 해야만 할 공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따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일변에 집착하는 병, 치우침 병을 몰록 끊어버리면 홀로 독립해서 온전한 몸 그대로 활기차게 우뚝 솟을 것입니다. 따로 의지할 것 없이 맑게 갠 허공이 가없이 넓게 트이고 모난 구석이 없는 경계를 얻을 것입니다 장부들이여 올 겨울에는 목숨을 걸고 노력합시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매일여寤寐一如, 잠자는 중에도 살피면서 정진하고 정진합시다. 이렇게 한 집에 모여 같이 머리 깎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 는 이 일대사의 거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피고 또 살피세요. 서산西山스님이 물었습니다.

問爾禪和墻壁意
非心非道是甚麼
直須密密參詳去
始息諸緣見達摩

너희가 선방에 앉아 있는 뜻을 묻는다.
마음도 길도 아닌 그 무엇인가
바로 오묘한 마음을 잘 살피
반연을 끊으면 달마를 보리라.

하좌下座. **定慧社**



성불의 현대적 의미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學監

ekayanawk@hanmail.net

프롤로그 : 혼돈에서 질서로

제1화두 :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제2화두 :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제3화두 : 성불의 현대적 의미

제4화두 :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제5화두 : 수행의 이론과 실천

에필로그 : 행복과 정토사회 구현



우리는 법회의식이 끝나고 서로 인사할 때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라고 말한다. 과연 우리 불자들의 의식 속에서 성불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흔히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불자가 스님에게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은 왠지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성불이 무엇인가요”하고 물어보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꼭 막히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고도 성불하겠다고 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 느낀 것은 남방불교권에서는, 대승교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성불합시다”하는 인사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남방의 상좌부 불교문화에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역사상 존재했던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남방불교권의 경전인 5부 니까야(Nikaya)나 율장律藏 속에는 과거 25불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역사상 실존했던 불타인 석존만이 유일하게 성불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인사할 때 스님은 팔리어송으로 축원의 말을 한다. 이곳에서는 우리처럼 스님과 신도가 서로 “성불합시다”하는 인사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최근 우리 불교계에서는 깨달음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던 적이 있다. 그것은 불교 안팎으로 불교에 대해 교리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 불교의 수행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깨달음에 대한 토론이 여러 곳에서 열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은 불교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들이지만 특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대승불교의 교도들에게 부처님은 누구인가.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대단히 포괄적인 일반 명사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7불, 현재불, 그리고 미래의 미륵불과 공간적으로 보면 동방의 아촉불, 서방의 아미타불 등 사방불이 계신다. 더 확대된 쉬운 의미로 바꾸어 본다면 “그 어디나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다. 정말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진제眞諦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참된 불성佛性を 가지고 있으며 깨달은 이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부처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시간 공간

에 무량무변하게 계신 분이지만, 우리도 역시 일차적으로는 부처님을 역사상 실존했던 석존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일 남방의 상좌부불교권이나 대승불교권에서 부처님을 유일하게 석가모니불로만 인식한다면 우리가 “성불합시다”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불은 유일한 부처님으로 아무리 우리가 수행하더라도 석가모니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불교 간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연원하는 것일까. 근본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번뇌를 소멸시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나타난다. 만일 수행자가 근본 무명을 완전히 소멸시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면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다시 말하면 근본불교에서 수행의 목표는 아라한과이다. 『아함경』에서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我生已盡 梵行已立 所作已作 自知不受後有”라는 계송을 노래한다. 즉 번뇌로 사로잡혀 윤회하던 나의 삶은 모두 끝났다. 청정한 수행은 모두 완성하였다. 인위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이미 다했다. 따라서 이제 다시는 윤회하는 생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것이 아라한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란 일체의 번뇌를 멸진하여 다시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경지,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서 고통스런 삶을 받지 않게 된 자기완성의 경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석존의 성불은 무엇인가.

석존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7일간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다가 연기의 이치를 순관과 역관으로 관찰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깨달음의 감흥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시었다.

고요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에게 진실로 법칙이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니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낸 까닭이다.

고요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에게 진실로 법칙이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니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을 알아낸 까닭이다.

고요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에게 진실로 법칙이 드러났다.

태양이 허공에서 작열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쳐부순 것이다.

『마하박가』중에서

깨달음과 성불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개인적 차원의 깨침은 자기 구제에 머물지만 깨달음을 성취하

근본불교와 대승불교간에는 깨달음과 성불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즉 근본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수행의 목표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은 수행의 과정이자 성불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나서 깨달음을 사회화[회향]하는 이타적인 과정을 통해 절대 완성의 길로 간다면 이것은 성불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발생 배경도 개인적 깨달음에서 깨달음의 보편화·공유화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불자들의 여망에 따른 것이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회향]하여 그 깨달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더 가치있는 일이다.

근본불교와 대승불교간에는 깨달음과 성불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즉 근본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수행의 목표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은 수행의 과정이자 성불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대승경전에서 성불의 기간을 3대아승지겹으로 설정한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영원에 가까운 기간인 3대아승지겹에 걸쳐 부단히 보살도를 실천해야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성불이 수행의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처럼 성불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상에 대해 『법화경』에서는 누구나 아주 작은 선행을 통해서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생기면 수기를 통해 만선을 쌓아 미래세에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다. 이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관되게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이 여래장사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래장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성불할 가능성으로서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비유컨대 가난한 사람의 집에 진귀한 보배가 득한 창고 있으나 주인이 그 사실 알지 못하니 보물이 어찌 스스로 말하랴.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의 어리석음 지적하여 말해주는 이 없네. 보배 창고 있어도 그 사실 알지 못하니 항상 가난으로 괴로워하네. 부처님의 지혜 눈으로 중생 살펴보니 비록 육도에 윤회하나 그 몸 가운데 큰 보배가 있어 언제나 변함이 없네. 부처님께서 이처럼 관찰하시고 중생 위해 설법

하시니 지혜의 보배 창고 얻게 하여 큰 부자가 되는 이익 주시네. 만일 내가 설한대로 일체 중생 진리의 보배 창고 간직하고 있다고 믿으면 부지런히 수행 방편 닦아 속히 최고의 진리 증득하리라.

이상에서처럼 『여래장경』은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아홉 가지 비유를 들어 설하고 있다. 여래장 사상은 중생이 성불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추구한다. 여래장계 경전인 『승만경』과 『부증불감경』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불성사상을 통해 성불의 가능성을 전개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성불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불을 관념적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불에 대한 논리적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대명제는 ‘깨달음에서 성불로’의 대전환이라고 하겠다. 특히 『법화경』에서 최초로 아라한의 깨달음이 성불로 전환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초기 대승경전에서 모든 사람은 성불할 수 있다는 성불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한을 결코 성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아라한인 성문이 성불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 최초로 사리불은 석존의 일불승의 가르침을 듣고 “오늘 비로소 저는 참다운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다운 성품인 불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히 깨달아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완성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서 태어났고 부처님의 교화에 의해 다시 태어나 불법이라는 한량없는 재산을 나누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라한인 성문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은 계승이라고 하겠다. 사리불은 자신이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 후에 석존으로부터 성불의 수기를 다 음과 같이 받는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할 만큼의 아득한 미래세에 이를 때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며 그 부처님들이 설하는 바른 가르침을 굳게 지켜 보살로서 해야 할 수행을 완전히 닦은 후 기필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리니, 그 이름은 붉은 연꽃과 같은 아름다운 빛살 가진 화광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 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하며 그 나라의 이름은 번뇌가 없는 청정한 이구離垢라 하리라.

깨달음은 수행의 끝인가. 아니면 수행의 과정인가. 위의 『법화경』 인용문을 통해보면 깨달음은 분명히 수행의 끝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근본불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깨달음은 수행의 끝임이 분명하다. 대승불교와 근본불교의 근원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깨달음이 수행의 끝인가, 아니면 수

행의 과정인가 하는 시각 차이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특히 전문 수행자인 출가 비구들이 깨달음은 수행의 과정이라는 시각을 가진다면 수행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출가한 수행자들이 일차적인 목적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승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깨달음은 어디까지나 성불의 과정에서 성취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다면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적이 분명해진다. 또한 모든 일체의 위의를 성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の 선후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바른 중생구제를 위해서는 깨달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보살의 크나큰 원력을 세워 끊임없이 중생구제를 위해 보살행을 실천해 간다면 하화중생 그 자체가 상구보리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깨닫는가 라고 했을 때 연기법緣起法을 깨닫는 것이라면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기법과 상반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은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신심있는 단월들의 보시

에 의한 후원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단월의 공덕을 등지고 혼자만 깨달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깨달음에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록 현재 상구보리를 위한 수행 단계에 있더라도 이 모든 수행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력을 상기하면서 기필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믿음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가禪家에서도 수행자가 좌선하기 이전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먼저 발한 후 좌복에 앉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도 역시 깨달음이 수행의 목표가 아닌 성불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뒷받침하는 실례일 것이다.

깨닫고 나서 중생 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눈 먼 사람이 어찌 눈 먼 중생을 구제하겠느냐,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어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가 라고 비유를 든다. 어느 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눈 먼 사람도 혹은 물에 빠진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물론 자기 혼자만 살려고 발버둥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나 물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지만 성불의 길은 그런 상대적인 세계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다운 성품인 불성이

불교의 근본 교의教義인 무상無常, 고귀, 무아無我, 공空을 분명하게 깨달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불자로서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낱낱의 보살행이 꽃이 되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화엄법계가 될 것이다.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히 깨달아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완성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남을 도와주는 행위에 몰입하면 그 순간 자신의 번민과 고통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화중생을 통해 상구보리가 가능한 논리이다. 어차피 깨달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수행자들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통해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의지해 수행하는 불자라면 참된 보살행을 하기 위해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훨씬 쉽게 깨달음에 다다를 것이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라고 하는 선사들의 지적을 상기해 본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영원히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不住生死不住涅槃)’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법신 보살인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은 이미 부처님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성불을 보류한 채 중생 구제를 계속하면서 대승보살의 수행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법화경』에서 구원久遠의 석가불은 영원히 열반하지 않으면

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며 열반에 드시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설하고 계신다.

밀교적인 관점에서의 성불은 이 세상에 제도할 대상으로서의 중생들이 모두 성불해야 완전한 의미의 성불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석존은 아직 완전한 성불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살행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생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보살님의 원력도 끝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성불을 향해 쉬임없이 보살행을 하는 그 자체가 성불도인 것이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세생생 원력으로 태어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단 한 번에, 또는 쉽게 성불하는 길은 결코 없다.

대승불교의 발생 과정에서 석존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불전문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근본불교에서 석존의 깨달음과 아라한의 깨달음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없다.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제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석존께서는 “이리하여 이 세상에

는 여섯 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존의 깨달음과 다른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같다고 보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 현성賢聖이 모두 무위법無爲法으로 차별이 있다”고 한 것이다. 바로 불전 문학가들은 석존의 깨달음을 성불로 간주하여 자타카라는 장르를 창안하였던 것이다.

석존은 한 번의 생에서 성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보살행을 실천하여 결국 이 생에 성도하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타카의 석존 전생인 보살이 실천했던 선행들을 살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선행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빠짐없이 닦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 일을 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전체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이런 선행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서 성불을 이루게 된 것이다.

『법화경』〈방편품〉의 계송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하잘 것 없는 작은 일을 통해서 성불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떤 사람 탐과 절과 불상이나 탱화에 꽃향기 맡아 해가리개 바쳐 일심으로 공양하거나 혹은 남을 시켜 풍악을 하되 북치고 뿔나팔과 소라 고동 불게하며 통소 피리 거문고 공후에 비파 자바라 징 등이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정성 다해 공양하거나 기쁨 가득찬 마음으로 부처님 덕 노래 부르되 작은 소리로 불렀더라도 모두 불도 성취했다. 산란한 마음으로 한 송이 꽃을 들어 부처님 탱화에 공양했다라도 그것이 인연되어 무수한 부처님 뵈게 되며 어떤 사람 예배하되 혹은 그저 합장하거나 단지 한 손 들었거나 살짝 머리 숙였거나 부처님 모습에 공양하면 차츰 무수한 부처님 뵈게 되어 스스로 불도 성취하고 널리 무수한 생명 구제한 후 싶 다하면 불 꺼지듯 대승 열반에 들어간다. 산란한 마음으로 탐이나 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한 번 외워도 모두 불도 성취하였다. 과거의 부처님들 세상에 있을 때나 멀도한 뒤에라도 이 『법화경』 들은 이는 모두 불도 성취했다.

위의 내용은 과거에 이미 불도佛道を 성취한 사례이다. 아마도 석존께서 성불하신 후 자신의 옛날 일들을 회상해 보니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두 성불의 종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술했던 것인지 모른다. 과거의 중생이 이렇진대 현재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통해 끊임없이 보살행을 실천해 간다면 미래에 성불할 것이 틀림없다. 미래의 중생들도 일체의 선행을 쌓아 성불할 것이다. 불교의 근본 교의教義인 무상無常, 고귀, 무아無我, 공조를 분명하게 깨달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

에서나 불자로서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날날의 보살행이 꽃이 되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화엄법계가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불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우리는 성불이라는 용어를 통해 관념적으로 그 대상을 석존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성불할 수 없다.’는 퇴타심을 내게 된다. 나는 아무리 억겁생을 수행하더라도 결코 석존이 될 수 없다. 나는 내가 세운 원력에 의해 나의 불도를 이룰 수 있다. 마치 범장비구의 48가지 대원에 의해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듯이 나는 나만의 원력에 따라 나의 불국토가 감득되게 된다. 설령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하고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인행이 다르기 때문에 감득되는 경지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마치 이 사바세계가 각각이 지은 개인의 업에 따라 다른 세계가 이루어지듯이 개인의 수행 원력에 따라 다른 세계와 다른 불국토가 전개될 것은 틀림없다.

성불을 현대적인 의미로 풀이해 본다면 인격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사회에서 말하는 통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32상과 80종호, 18불공법을 모두 갖춘 완전한 인격체 말이다. 이러한 완전한 인격 완성을 위해 영원한 노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는 사람이 수행자이다. 여전히 우리는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말할 경우 인격완성은 언행일

치, 지행일치를 말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큰스승으로 널리 존경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더 나아가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의 백분의 일이라도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회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 규범의 구속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도 칭찬해야 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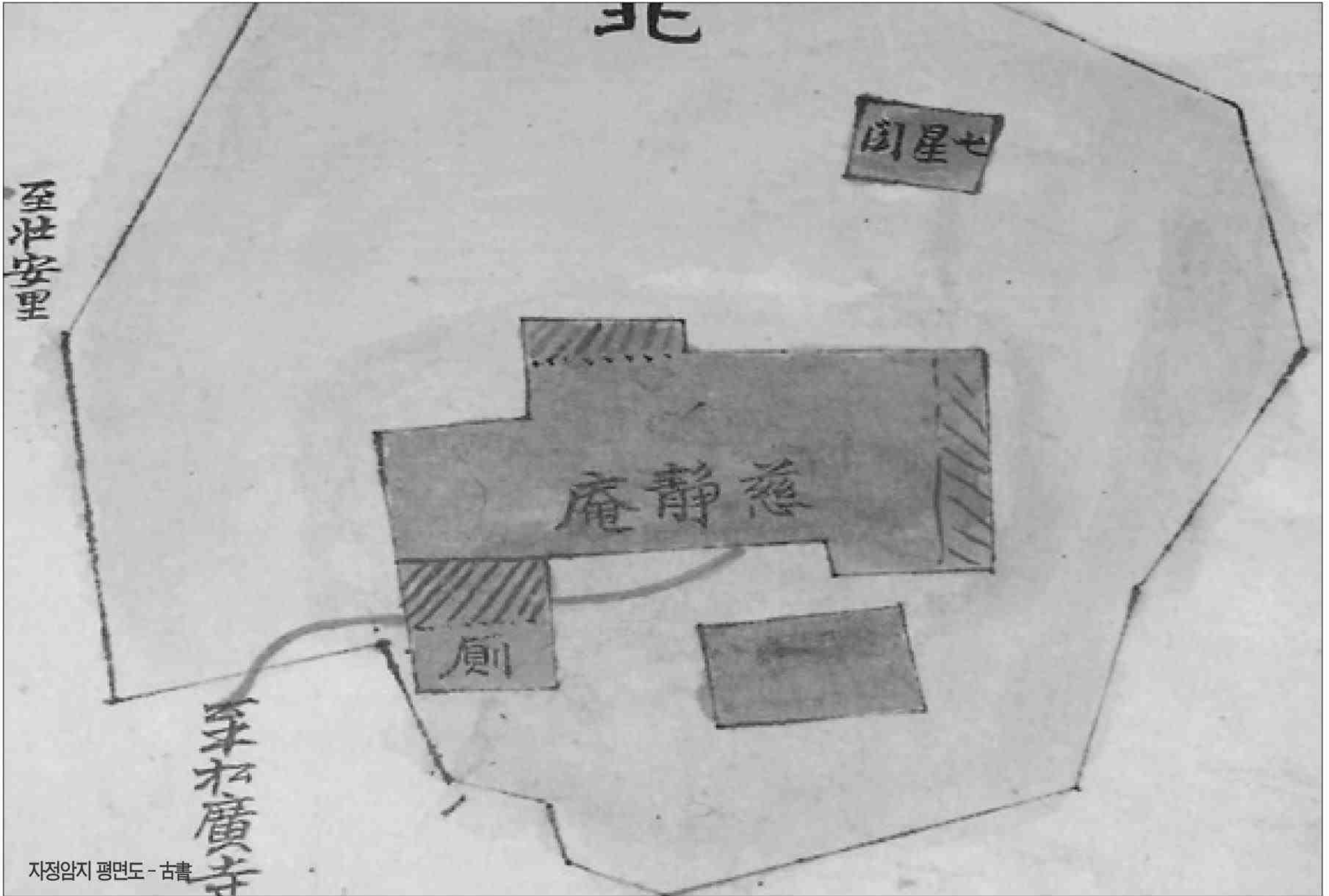
우리는 타인을 속이기에 앞서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을 스스로 없애 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속일지라도 결코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정토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주인의식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세속의 법에 앞서는 진리의 차원에서 이타적인 보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원리에 따라 성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성불이 영원한 보살행의 과정이지만 누구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고통의 윤회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定慧社〕**

〈다음호 계속〉

송광사 산내암지山內庵址와 국사탑國師塔

2.자정암지慈靜庵址



송광사 16국사 중 제7세이신 자정국사慈靜國師가 초창한 것으로 전해지는 자정암慈靜庵은 본찰 아래 탑전에서 계곡능선을 따라 도보로 20여 분이면 닿는 동남향의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옛 전각은 세풍世風에 사라지고 현재는 법정스님이 중건한 불일암佛日庵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자정국사(慈靜一印 : 1293-1301)에 대해서는 비문이 인멸된 지 이미 오래여서 행장行狀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국사의 탕액幀額 및 탑제塔題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조정에서 내린 시호는 자정국사慈靜國師이고 탕액은 묘광妙光이며 국사의 탑은 자정암慈靜庵의 동북쪽 산등성이에 있다.

정조 16년(1792) 봄에 와월교평臥月教萍선사가 수집하여 기록한 송광사 사적에 의하면 국사의 휘는 일인一印이고 제오세第五歲인 원오국사圓悟國師의 제자이다.

그런데 원감국사의 가송歌頌 가운데 차운次韻 답규봉인선백答圭峰印禪伯과 차운次韻 답란송선사答蘭松禪師 인공印公의 두 스님 중 한 분이 곧 일인이 아닌가 한다. 원감국사나 자정국사가 다 함께 원오국사의 제자이니 서로가 사형사제지간이 되므로 인공印公 또는 인선백印禪伯이라 호칭했을 것이다. 국사께서 원감국사의 뒤를 이어 第七歲法主가 된 것은 아무래도 원감국사의 시적하신 해인 충렬왕 19년(1293) 계사년癸巳年임이 의심할 나



자정암지 불일암 전경



자정국사 묘광탑

위없고 입적하신 연대는 충선왕 또는 충숙왕의 초기쯤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정암은 기봉장오(奇峰藏叟)(1776~1853)스님께서 9년간 면벽좌선을 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허치성(洞虛致性)(1844~1901)스님이 만일회를 베풀어 정토업을 닦은 암자로도 기억되고 있다. 이후 70년대 중반 범정스님께서 주석하시면서 중창하게 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불일암 우측으로 돌아 50여m 오르면 자정국사의 부도탑인 묘광탑(妙光塔)을 만날 수 있으며, 반대편으로 바라보면 객석이 쉬어가는 아담한 요사채가 보인다. 암자 본당 처마 밑 통나무 의자는 무소유 산승의 정감을 더 하는데, 고인(古人)이 떠난 자리에 후학의 체온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정암지(慈靜庵址) 연혁

慈靜國師 妙光塔(第7世)

○소재 : N 35° 00'23", E 127° 16'26", A 310m. 좌향 165° (남) 높이 238cm

불일암 (자정암지) 북동쪽 50.

* 慈靜一印 [1293-1301]

慈靜庵址

○소재 : N 35° 00'22", E 127° 16'25", A 305m. 좌향 140° (남동) 망수봉 아래.

* 望水峰 : N 35° 00'24", E 127° 16'14", A 407.0m. 서울大, 규장각지도(1886)에는 望需峰.

구전에는 望守峰.

○연혁 :

자정국사 초창이라 전함.

1708(숙종 34년) 봄. 중수(화주 時習, 도감 以澄).

1765(영조 41년) 봄. 공루 창건(2. 27. 상량, 화주 卓明).

1835(헌종 원년) 11. 후불탱화(도광15) <No.43>, (본사 七殿 조성) 증사 有安, 금어 益贊, 도감 麗淳.

부도전에서 박물관으로 옮김(1995).

1845(헌종 11년). 奇峰藏叟(1776-1853). 별실로 물러나 면벽좌선(9년간).

1853(철종 4년) 8.16. 기봉장오 입적.

1860년대(철종, 고종). 蓮峰鳳麟(1833-1912.1.25) 주석.

1866(고종 3년) 봄. 칠성각 창건(화사 乘虛).

1867(고종 4년). 칠성각 단청(총섭 宜岑).

1867(고종 4년) 10. 29. 칠성탱화 3폭(동치6) <No. 32, 33, 34>, 증명 忍庵正悟, 금어 龍院堂, 奇衍, 就善,

- 妙英, 도감 依俊 (현재 관음전).
 1867(고종 4년) 10. 칠성각 창건기(東溟貨印).
 1877(고종 14년). 鏡海官一(1843.11.12-1928.2.3) 주석(應虛 법인).
 1879(고종 16년) 4. 洞虛致性(1844.10.21-1901.7.9. 巳), 만일회 베풀고 정토업 닦음.
 1879(고종 16년) 11. 17. 지장탱화(광서5) <No.20>, (현재 박물관), 증명 優曇洪基, 도감 閔潭性演,
 금어 雲波就善, 天禧, 敏禹.
 1882(고종 19년) 4. 萬日會. 본사 普濟堂으로 옮김.
 1886(고종 23년) 가을. 圓海鳳玉(1850.3.15-88.2.22).
 1887(고종 24년) 가을. 圓海鳳玉, 보조암으로 이석.
 1891(고종 28년) 봄. 정문 중수 (화주 月和 · 桂庵, 도감 龍船).
 1917. 여름. 중수(주지 雪月).
 1921. 9. 西翼室 중건(화주, 도감, 별좌 瑞月奇文).
 1921. 뒷방 수선 <雪月龍變(1868.10.16-1938.1.26)>.
 1922. 봄. - 27. 景溟泰敏(1858.12.3- ?) 주석(만일회).
 1925. 4. 桂庵應寬 주석 (사고 P.243).
 1926. 5. 蓮海 주석(사고 P.247).
 1929. 4. 26. 공루훼철.
 1929. 가을. 浩鵬振弘(1863.4.8- ?) 주석.
 1975. 중건(불일암, 法頂).
 1986. 5. 25. 수각.
 1986. 10. 27. 해우소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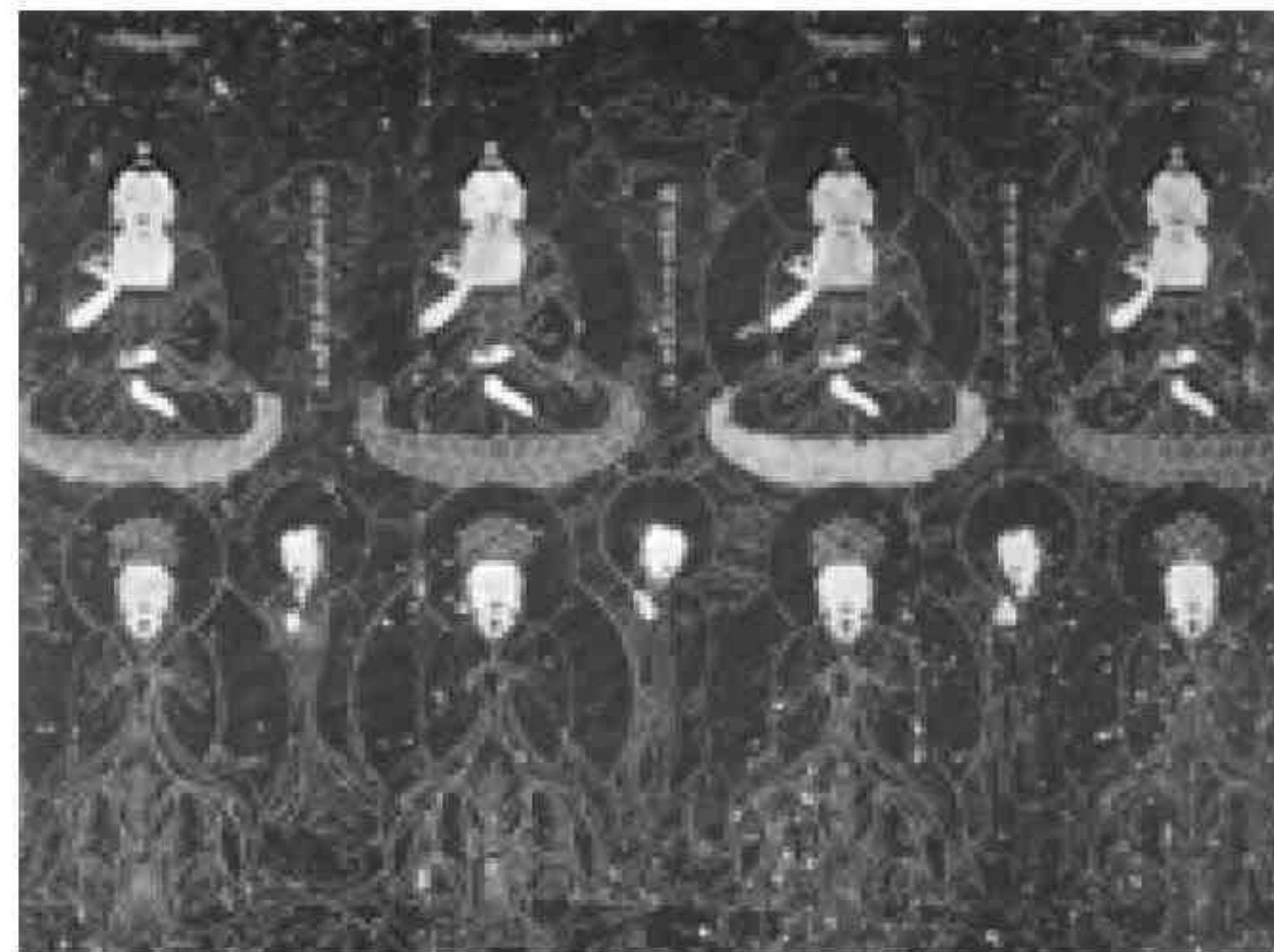
자정암 탕화



석가모니 후불탱화
(1835년)



칠성탱화 중앙
(1867년)



칠성탱화 좌
(1867년)



칠성탱화 우
(1867년)



지장시왕탱화
(1879년)

출가 이전

자각自覺 | 사미

출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오래 전 한 장의 빛바랜 흑백사진에서 본 산사로 난 오솔길을 따라 잿빛 승복을 입고 걸망을 메고 초연히 산길을 오르는 어떤 스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
대학졸업 후 사법시험 준비로 전국의 여러 암자를 주유천하하며 고시준비를 하던 때부터 나 자신도 모르게 출가에 대한 막연한 잠재의식이 나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짝이 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법학서적과 씨름했지만 문득 문득 내 자신의 내부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요동치며 내 삶에 대한 일말의 회의를 느끼기도 했으며, 일단은 산사에만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
눈 내린 겨울날 밤 밝은 달빛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좋았고 나른한 봄날 오후 방문을 열어놓고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고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 새파랗게 솟아나는 보드랑고 앙증맞은 새싹이 좋았고 오뉴월 띄약별에서 별거벗고 뛰어들던 계곡의 차가운 물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겨울이었다. 밤새 눈이 잔뜩 내리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 행여나 누가 밟을까 하얀 눈 위를 걸으며 뽀드득 하는 소리를 즐겼다. 더리는 방안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방 옆으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를 들었다. 물소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졌는지 참으로 놀라웠다. 여름날 장마철 폭우로 비가 오면 계곡의 물은 엄청나게 불어나 계곡의 바위와 함께 휩쓸려 내려가면서 우르릉 광광하는 천둥소리에 귀가 멍멍해지기도 했다. 내가 공부하는 방 옆으로도 조그마한 계곡이 있었고 자그마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소리는 참으로 맑고 경쾌하고 영롱한 소리였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서 듣고 있어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산사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낯설지가 않았고 친근감이 있었다.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청년은 중년이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봄날 여름날의 청년이 아니었다. 세월은 나를 자꾸 몰아세우고 있었고 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 이듬해 3월 나는 결심을 하고 해인사를 찾았다. 무작정 절 안에 들어가서 죽치고 앉았다.
스님에게 출가하러 왔다고 하였다. 스님 왈 “거사님은 나이가 이미 40을 넘어서 자격이 안 되니 하산하십시오.” 순간 앞이 캄캄했다. 아뿔싸. 늦었구나! 후회가

막심했다. 결국 해인사에서 3월 달
 하산하고 10월 달 구인사로
 출가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여의치
 못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12월 달 선암사가 인연이 되어서
 선암사에서 1년여 간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수계식을
 마치고 송광사 강원에 방부를
 들이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좀 더 일찍 출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늦깎이로 출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나에겐 부처님과
 부모님의 큰 은덕이라고 생각이
 된다. 44년 동안의 덧없는 세월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부처님 전에서
 남은 세월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훌륭한 스님이 될 것이라
 다짐해본다. 밖에선 범종소리가 못
 중생들의 성불을 기원이라도
 하듯이 웅장하게 울린다.
 땡! 땡! 땡! **定慧社**

하심下心

청사靑事 | 치문

‘하심하세요’
 강원에 방부를 들이고 줄곧 들어온
 말이다.
 한자에 깊은 지식이 없어서 단순히
 마음을 낮추라, 겸손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심하세요’란 말은
 윗반스님이 지적하거나
 습의사항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본인의 임의대로 판단하여
 행동했을 때 듣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차츰 강원에
 적응하면서 하심이란 말이 여러
 군데서 포괄적으로 쓰이는걸
 보면서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하下는
 내려놓으라는 뜻인데 심心은
 나라는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 즉
 중생심을 말한다. 이를테면 바다가
 있으면 그 위에 출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파도는 중생이고 바다는
 불성이라고 한다.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듯이 중생심도
 내려놓으면(下心) 그대로 부처라
 했던가. 하심의 깊은 뜻을 새겨
 보면서 그 동안 얼마나 하심하지
 못하고 살아왔나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에 강원에 방부를 들어서 꼭
 같은 사항을 여러 번 지적받아도
 고쳐지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미묘하게

숨어 있는 거부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였던
 것 같다. 발우공양 때는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감박감박 실수하게
 되는데 그것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 힘들다는 마음 등 여러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였던 것 같다. 또한
 도반스님들과 부딪치는 것도 내가
 잘나고 많이 알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였던 것 같다.
 이렇듯 그동안 하심하지 못하고
 산 것을 반성하면서 한편으로
 강원이란 곳이 하심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이 든다.
 좁은 공간에서 윗반스님들과
 도반스님들과 서로 탁마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수시로 지적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곳이 강원이
 아닌가. **定慧社**



남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지 말자

혜강慧江 | 치문

송광사에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치문 과정을 지내고 있다. 치문반을 정신없이 지내면서 자신을 한 번도 되돌아 볼 수 없었다. 쉼 틈 없이 지낸 올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순간 지난 생활을 반성하며 몇 자 적어본다. 그동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해 본 적이 있는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할 때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일이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이의 입장에서 보고 비판하고 채찍질하면 어떨까요. 시비여지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나의 행동을 남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자신의 죄를 더 크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문득 출가전의 스님의 법문이 생각이 난다. '자신을 나무라면 밝아지고 자신을 용서하면 어두워진다'

남을 나무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나무라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점점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쉽게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남을 용서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늘 그릇된 행위를 범하는 것이라 본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같은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을 용서할수록 수행의 자리는 더 멀리 도망가고 말 것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말자.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생각이 사라지도록 해보자. 이 추운 동안거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이 몸 건강하게 수행 정진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하며 나 자신부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본다. **定慧社**

내 안의 허물

지월智月 | 사집

어느 사회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 속에서 조화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인간본연의 자세로 늘 회귀해왔건만 그 배움과 성장의 노하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매번 새로운 경계와 경험들 속에서 이내 상처를 받고 수많은 허물을 만들어내며 미세한 주름만이 늘어나는 것 같다. 온 우주 이 세상 모든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타인의 허물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어둡게 비추고 또한 서로에게 불만 섞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나를 포함한 누구든지 늘 무수한 상황과 입장에서 다양한 역할과 과제, 그리고 책임들을 요구받게 된다. 활동의 소재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고선 시간이 흘러 마음의 노을을 맞이할 때쯤이면 피로의 무게에 맞춰 큰마음의 위치에 서지 못한 여유 없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고, 주위의 탁마와 더불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신구의身口意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허물의 씨앗들이 움트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시비곡직의 웃을

입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이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세상에는 허물을 남기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수행자들
 사이에서 과연 이 허물들을
 섭수하여 녹여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허물이 퇴적된 창고를
 늘려가야 할 것인가. 문득
 날카로운 기지機智를 발휘하여
 나와 너를 분리하는 이 분별의
 순간을 초탈시킬 수는 없을까.
 이 순간 벌어지는 더없이
 위태로운 집단간 국가간 종교
 간의 모든 갈등의 현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가슴에는 과연
 어떤 지혜의 노래를 품고 있을까.
 나라고 할 수 없는 나는 결국 왜
 이 마음의 창에 저 화염세계처럼
 원용무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타인의 허물로
 가장하는 나의 허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고통을 당할 때 종종 '이것은
 나의 무지와 함께 스스로 이해의
 장場이 한계에 부딪친
 증거야!' 하고 내면으로 우선해서
 비상 신호를 보내보지만 현재의
 고통과 그 고통의 다양한 관계와
 이유를 어떻게 회통시킬 수
 있을까. 물론 침묵의 시간이
 이해와 중화된 모습으로
 돌려놓겠지만, 현재 이 마음의
 창窓으로
 법계 안의 평화와 조화를
 그리워하기에 화두를 살펴보듯
 나의 허물을 돌이켜보게 된다.
 무지의 장막을 거두고 이해의

장場을 펼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있을까.
 연기법에 따른 업설業說을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스스로
 위로하거나 개인의
 운명運命이라고 핑계를 대는
 노릇이 역시나 우리가 지어낸
 욕망과 저항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인자, 업식
 등에 따른 육체적
 불균형으로부터 정서적 변이로
 인한 정신적 한계와 결함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와 신념으로
 말미암아 많은 허물이 생성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섭수할 수
 없을까. 순간순간 가슴속에
 고통스러움을 동반하며 나와
 그들의 장애와 업業을 풀어가는
 힘겨운 시간이 요동치다
 지나가곤 한다.
 시대마다 등장한
 대선장大禪長들이 지혜와 덕성을
 구족하기까지는 실상경험들로
 수없는 난행고행難行苦行으로
 막힌 허물들은 되돌려 녹이면서
 마침내 높은 차원의 자비심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늠해
 본다.
 세속의 사람들이나 출가
 수행자들이나 수시로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면 무척이나 힘겨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행修行이라 이름 하듯이 먼

허공을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와선 결국 마음의 장벽을
 부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한다. 칼끝의
 예리함으로 정견正見의 정釘을
 들고 은산철벽을 향해 힘껏
 내닫고 싶다.
 도서都序에
 '비심悲心은 번진翻瞋하고
 지심智心으로 번치翻癡하고
 원심願心으로 번탐翻貪이니라' 는
 글귀가 마침 텅 빈 가슴 한 곳에
 자리매김하는 듯하다. 定慧社



석굴암

연옥鍊玉 | 사집

아침 일찍 골굴사를 출발한 버스는 경주 시내를 굽어보며 붉고 노랗게 단풍물이 든 토함산 산자락을 엔진소리 요란하게 뿜으며 오르고 있었다. 어제 승가학인체육대회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송광사 강원 사상 처음으로 축구에서 1승을 올렸는데, 리그전으로 치러진 덕분에 2패 뒤 1승을 올릴 수 있었다. 물론 스님들이 승부에 집착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승부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이고 또 경기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지 스님들의 표정은 한껏 밝았다. 어느새 차는 석굴암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 길게 뻗은 인파의 행렬, 수학여행 온 외국학생과 초등학생들, 그리고 일반단체관광객들, 석굴암까지 가는 길은 관광객들로 꽉 메우고 있었다. 단풍이 곱게 든 산속의 비포장 흙길,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 아직 햇빛이 들이지 않은 부분이 산속의 단풍색깔을 더욱 선명하고 신선한 무게감마저 느끼게 하였다. 사실 중학교 수학여행 때 다녀간 뒤로 처음 와보는데 그 때는 토함산 일출을 보기위해 새벽

어두움을 뚫고 찬 공기에 몸을 웅크리며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이 길을 걸었었다. 그 때도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많은 인파에 밀려 그냥 떠밀려 올라갔었다. 선생님들의 눈은 캄캄함 속에서 인원과악 하느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좁고 졸린 우리는 석굴암에 올라가는 의미를 체감하지도 못한 채 떠밀려 걸어갔었다. 이런 기억이 사라질 무렵 석굴암에 도착해 있었다. 고요히 가부좌를 틀고 삼매에 드신 마치 인큐베이터 안의 아이처럼 향마촉진인의 석가여래좌상, 아름답기 그지없는 마치 찰흙을 빚듯이 밀가루 반죽을 주무른 듯이 나무를 깎아놓은 듯이 정교하고 반듯한 모습, 투박하지 않고 세련된 몸매와 표정, 신라 천년의 미소, 석굴암! 120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흙 속에 묻혀 존재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선정삼매에 들어계셨던 부처님. 누군가 발견해주길 바라셨을까? 석굴암 법당보살한테 유리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니 스님들의 부탁이라서 그런지 흔쾌히 열어주었다. 유리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벽차오름 속에 두 손 모아 합장을 했다. 금강역사의 호위 속에 연화대에 앉으신 부처님을 둘러싼 11면 관음보살님과 10대 제자 및 나한님들, 돌조각 하나하나에 깃들어있는 신라시대 석공들의 손자국과 숨결, 마치 천상의 한

회상에서 설법하시는 듯 장엄한 모습이였다. 석공들은 죽어 다시 태어날 극락세계를 꿈꾸었을까? 또는 자신들이 다듬고 있는 돌덩이가 후세에 길이 남을 예술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했을까? 아마도 대신심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석굴암, 마치 화장장엄세계에 온 듯한 착각 속에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송했다. 염불소리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음속의 벽차오름은 환희로 변하여 내 주위를 맴돌아 감쌌다. 약간 흐린 듯한 하늘에서 얇은 햇살이 나무사이로 비치고 색이 진하고 장중한 느낌의 단풍잎이 한결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더벅더벅 걷는 걸음 뒤에서 “나미아미타불 관셈보시알~!!” 수학여행을 온 아이들이 스님들 보고서 장난을 쳤다. 그 아이에게 합장으로 답례를 해주며 웃는 사이에 토함산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다. 定慧社

파계사 영산율원장 여산 철우如山哲牛 스님



이번 탐방에는 파계사 영산율원에 주석하시는 철우스님을 친견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진입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파계사 삼거리부터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었다. 계곡을 끼고 울창한 숲 길을 따라 오르자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경내로 들어서자 눈길을 끄는 것은 돌로 만든 축대였다. 가파른 곳에 자리하고 있어 진동루, 원통전, 적묵당, 설선당, 기영각 등이 모두 돌축대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구시 팔공산 자락에 있는 파계사는 잡을 파把자에 계곡 계溪자를 써서 계곡을 잡는다는 의미인데, 본래 절 주위에 아홉 갈래나 되는 물이 흘러내려가 땅의 지기地氣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 아래 연못을 파고 물줄기를 모았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여산 철우스님은 도봉산 망월사에 입산하여 통도사와 범어사에서 불교경전을 배웠고 해인사 율원을 나오셨으며 1990년 자운율사慈雲律師로부터 전계를 받았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단일계단의 증명아사리와 법계위원회 시행위원이며 파계사 강원 강주와 영산율원 율원장이다. 스님께서서는 우리 일행에게 멀리서 찾아오느라 노고가 많다며 반갑게 맞아 주시고 편안한 분위기로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셨다.

요즘 하루 일과와 근황은 어떠신지요.

일반대중과 똑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요즘은 조용히 쉬고 있어요. 몇 년 열심히 했더니 조금 지친 것 같아 좀 쉬었다가 내년 해제 후 부터 다시 열심히 하려고 쉬는 중입니다.

출가인연과 행자시절의 모습은 어떠셨는지요.

내 출가시절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스님들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참 어려웠습니다. 50년대 후반에 출가를 했는데 그 때는 사회나 절 집안이나 다

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못 참겠지요. 우리 때는 나이도 어렸지만 여러 가지로 여건이 힘들었습니다.

수계 이후 경학을 공부하시면서 율학을 배우게 된 동기나 인연담에 대하여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내가 아마 만 20세 전에 강원을 졸업한 유일한 스님일 것입니다. 그때 두 분이 더 있었는데 한 분은 이미 작고하셨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 중에 내가 가장 연소자로 졸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파계사에 와 있다가 율원 개원과 함께 입방해서 공부했었는데

는데, '졸업 후에 와서 계율을 공부 하겠다면 강원 졸업을 생각해보겠다' 하셨지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제도적으로 짜여져서 기한이 되면 졸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터득할 때까지 시키는 방법이었으니 『금강경』 하나 갖고서도 몇 년을 했고, 『기신론』 하나 가지고도 일 년 이상이나 공부했습니다. 지금처럼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엄경』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졸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원을 졸업한다니 어른 스님들이 노파심에 그런 말을

마치 군복무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육시켜서 계를 주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예전에는 출가해도 되겠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못 참겠지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공부하려는 노력과 인내력만큼은 요즘 스님들과 비할 데 없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편리하게 생활하고 고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복무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육시켜서 계를 주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예전에는 출가해도 되겠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고 무

그 때는 누구의 복이라기보다는 모든 스님들의 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스승이 많았으니까요. 열반하신 성철스님, 고암스님, 일타스님 등 대단한 선지식들이 주위에 계셨고, 또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질문에 답해줄 만한 그런 스승들이 계셨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인사 총림 첫 해에 방부를 들이게 된 것은 어린 나이에 강원을 졸업한다니까 어른 스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때 범어사 주지를 자운스님이 하셨

던했는데, 강원은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졸업 후에 파계사 금당에 있는 동안에 여러 번 자운스님한테서 지금 여기 주지스님과 같이 확인을 거쳐서 67년도 동안거에 총림 첫해 개원한 해인사 율원에 입방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일타스님의 강의가 있었고, 또 고암스님이나 해인사 방장이신 성철스님 같은 분들이 주위에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

『사분율장』 속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구는 위의를 아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청정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대중에 수순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사분법(비구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4가지 위의를 설명하는데, 이것만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

어요. 좋은 인연이었습시다.

율을 배우게 된 동기는 특별히 율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어른 스님들이 시켜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4명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해인사판 장경을 찍게 된 일이 있었는데, 『대덕비구니경』이라는 경을 보고 차츰차츰 공부에 재미가 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율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9년도인가 다시 단일계단에 습의사로 다니면서 이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수행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환희심 나시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직도 더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내가 제일 보람(환희심)을 느꼈던 것은, 지금과 같이 행자교육을 안착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 송광사 방장스님의 덕분이지만, 신체검사라든가, 삼보일배라든가, 일보일배 등 주요 프로그램이 자리잡혀 지금 27회라는 행자교육을 배출하게 된 것이 제일 보람이라면 보람됩니다. 또 계단도 단일계단으로 자리가 잡혀서 일사불란하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미력하나마 저의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교육 과정 중에 계·정·혜 삼학이 고르게 안배되지 않고 계학에 대한 비중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미율의』 자체가 비구 250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미들이 지키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추려 놓은 것이 사미10계인데, 그 교과목을 한 때는 『치문』에 앞서 가르쳤는데 요즘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본분마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 강원의 교과 중에서도 『능엄경』과 같은 경전은 오히려 율장 못지 않게 계율에 대하여 강조를 한 것인데 제대로 이것을 주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강사스님들께서 말씀만 전해줘도 지계 중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각 강당에서 율을 전공하지 않은 스님일지라도 『사미율의』 정도는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사미는 사미다운 계율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편입시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인스님들이 사미(니)계를 수계하

고 나서 계율정신을 어떻게 지니고 수행해야 하는지요.

계율 지키고 산다는 게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워하고 터부시하고 그러는데 너무 부담감을 갖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한 과정 한 과정을 거쳐 가면 수행자가 다 되는 걸로 오해들 많이 합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진실하게만 살면 되는데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심에 치우쳐 살다보니 계율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사분율장』 속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구는 위의를 아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청정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대중에 수순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사분법(비구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4가지 위의를 설명하는데, 이것만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난관이라면 난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수행자가 일정기간 노력한 양만큼 바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닦는 공부가 금생에 인연을 맺어 놓으면 내생에 몇 겁을 거치면서 수행할 각오로 하는 것이지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얻으려는 욕심만 버리면

계을 지키고 사는 수행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심하여 출가했지만 생활하다보면 여러 주변 환경을 접하면서 알게 모르게 계율을 어기게 되는데 이 때 어떠한 지계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인내력을 길러야 됩니다. 특히 학인시절에 인내력을 기르지 못하면 평생에 수행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어른스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지금 강주와 율주를 겸하고 있지만 요즘 강원 학인들이 예전에 없던 행사가 많아졌고 방학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회법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출가하여 수행한다고 하고서 방학을 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방학이 없었고 해제 때만 잠시 보름이나 20일씩 방학이 있었지 지금처럼 거의 한 달씩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방학 동안에 학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보던 책을 다 제쳐 두었다가 보기 어려운 한문책을 다시 보려면 골이 지끈지끈 아프고 공부하기 싫어지죠. 공부라는 것도 수행의 리듬을 타고 가야 되는데 리듬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강원에서 사회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왜 새삼스

럽게 출가해서 사회 학제를 따르단 말입니까. 그렇다보니 안거의식이 없어서 부처님이 왜 안거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방학이 있고 중간에 외출이 있어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단속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사회의 법제를 자꾸 따르다 보니 오히려 출가 때보다도 더 퇴보되는 거죠. 이것은 꼭 고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송광사와 같은 공부환경을 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우선 TV가 없다는 것이 부러워요. 뭐 나도 가끔 TV를 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외부와 끊고 수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초심初心을 죽는 순간까지 이어나가야 하기에 외부의 잡다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잘못 스님들이 이해하고 심지어는 월드컵 때 중계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으로 서로 불화가 났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근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네 작은 이익에 치우쳐서 폐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반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꼭 버려야 될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보일배를 만든 이유는 모든 내 마음

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절을 할 적에 가래침이나 우리 몸에 닿으면 싫어하는 물질들이 깔려있는 곳에서 석가모니정근을 하며 절을 하면서 싫어하지 않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교만 이런 것을 버리자는 의미에서 삼보일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버리자고 삼보일배를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언자고 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어요. 속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풍토들은 강원에서 기반을 닦지 못하면 평생 승려생활 하는데 참 힘듭니다. 강원생활 4년만 인내하며 수행한다면 평생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율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승가교육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율장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율장대로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가해서 먼저 5년 동안은 계율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강원에 가서 경장도 공부하고 선원에 가서 참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정이 종단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발만 동동 굴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

인내력을 길러야 됩니다. 특히 학인시절에 인내력을 기르지 못하면 평생에 수행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어른스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알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계를 받으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강의 때마다 학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로는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입니다. 대체로 스님은 스님다워야 되고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악은 피하고 선하게 살라’

도 계율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율원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해인사 율원에 있을 적에 문제가 공부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운스님이 『속장경』 율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후학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타스님, 현 송광사 방장스님, 종진스님, 나, 현 파계사 주지스님 등 다섯 분이 뜻을 모아서 『율장전서』 75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모집하러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4개국을 다니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그 자료를 모아서 『율장전서』를 편집하면서 영산율원을 개원했습니다.

영산율원을 만든 이유는 당시에는 율원 2년제가 없었고 열성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제대로 율장공부를 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를 이을 만한 율사를 만들어 내는 특이한 율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종진스님, 나, 현 파계사 주지스님

세 분이 뜻을 모아서 96년도에 영산율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시는 스님들이 율장공부에 뜻을 두기보다는 거쳐 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해서 무척 안타까웠는데,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6명의 전제 제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자들인데 그나마 다행히 6명이라도 배출되어 한 짐을 덜었다는 생각입니다.

파계사에 오시면 바로 비니장毘尼藏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율장에 대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하기 힘든 계율에 관련 서적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스님들이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지원하는 스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요즘 사찰사정도 어려워서 많은 대중이 모여서 공부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율장 연구원인 비니원 개원에 따른 소감과 율장 연구의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계율사의 생각으로는 계율사의 저변확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단의 수

계산림때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계할 때 강의 할 능력이 있는 스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곳에서 여섯 명이라도 배출되었다는 것이 자긍심을 갖게 하죠. 앞으로도 더 많은 스님들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율사라는 명칭도 한도적으로 배출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과 어른스님이 보았을 때 가능성만 있어 보이는 스님이라면 율사라는 칭호를 주어서 ‘나는 율사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율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스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선방이나 강원이나 다른 대중처소와 달리 율원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2년 동안 화합하며 공부를 마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인스님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찾는다면 실패



파계사 원통전

없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원만하게 마칠 것으로 봅니다. 또 당부하고자 한다면 지계중심을 스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선 스님들이 계율을 알고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수지독송하시는 소의경전이나 귀감으로 삼고 계시는 경구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이한 경구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나중 일이고 모든 학인스님에게 권

하고 싶은 것은, 사미는 사미대로 비구는 비구대로 계율을 알고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알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강의 때마다 학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입니다. 대체로 스님은 스님다워야 되고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악은 피하고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고 듣는 사람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스님의 원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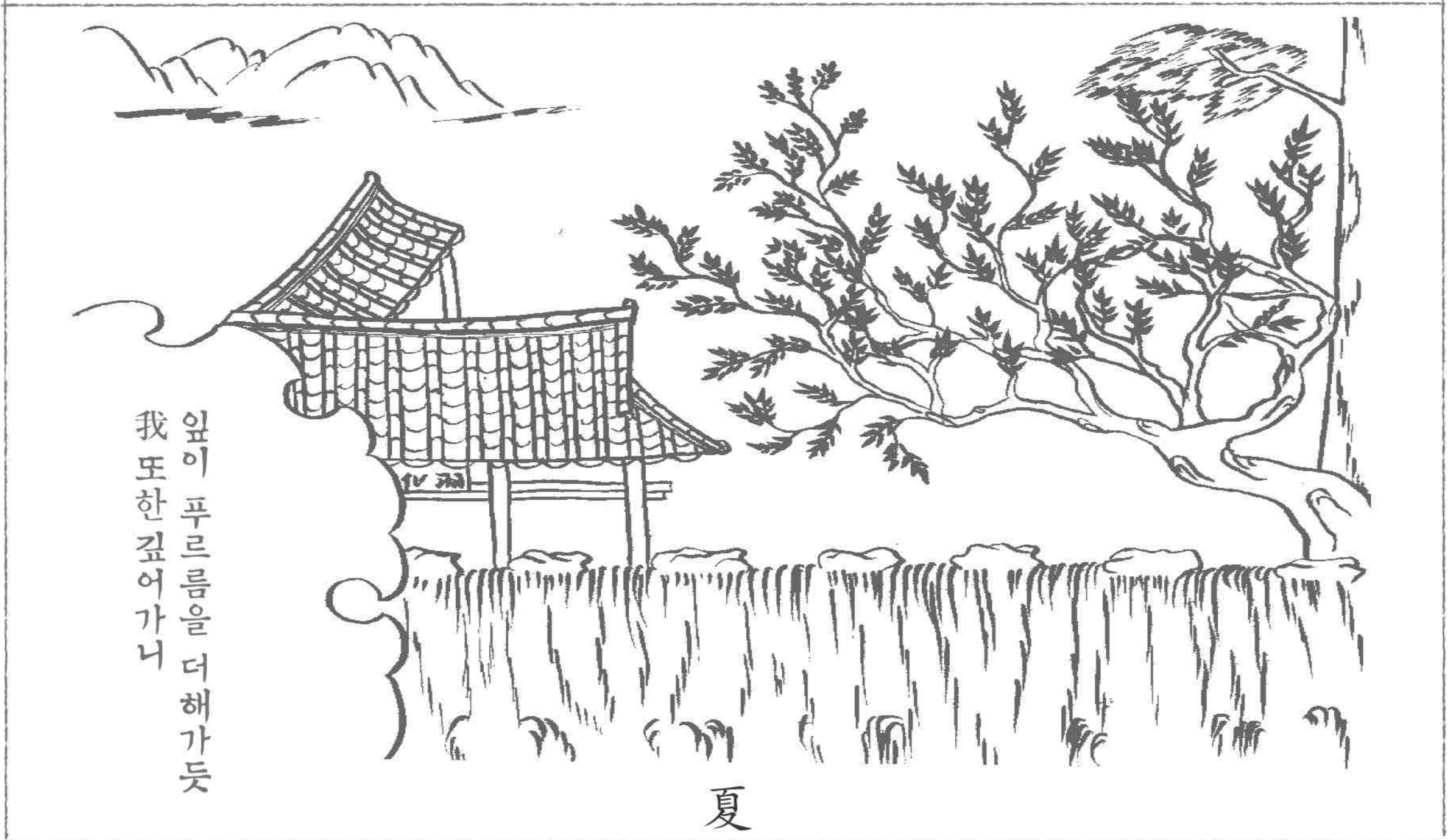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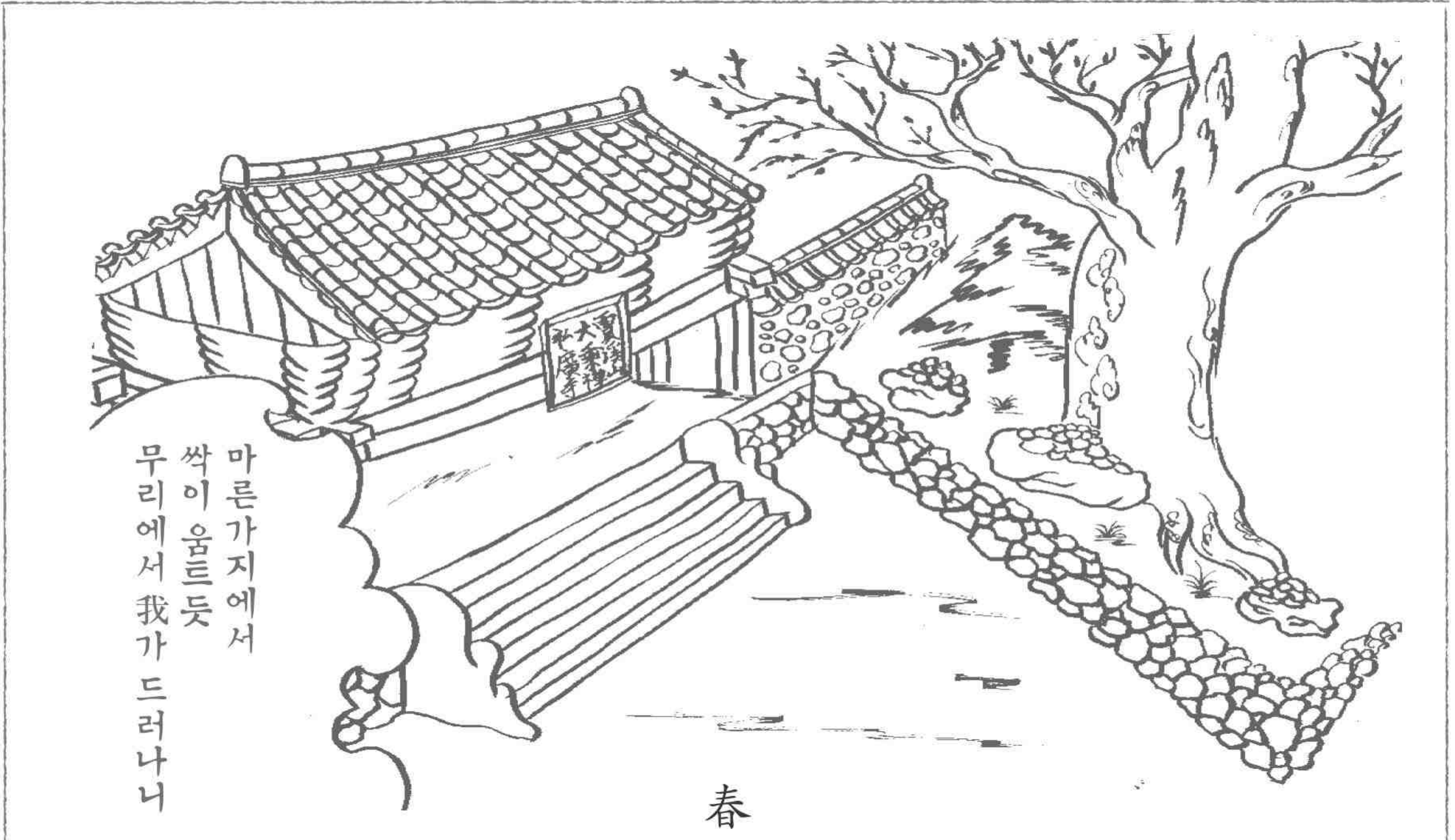
앞으로의 바램은 많은 승려들이 계율을 공부했으면 싶고, 또한 승려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싶습니다. 또한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승려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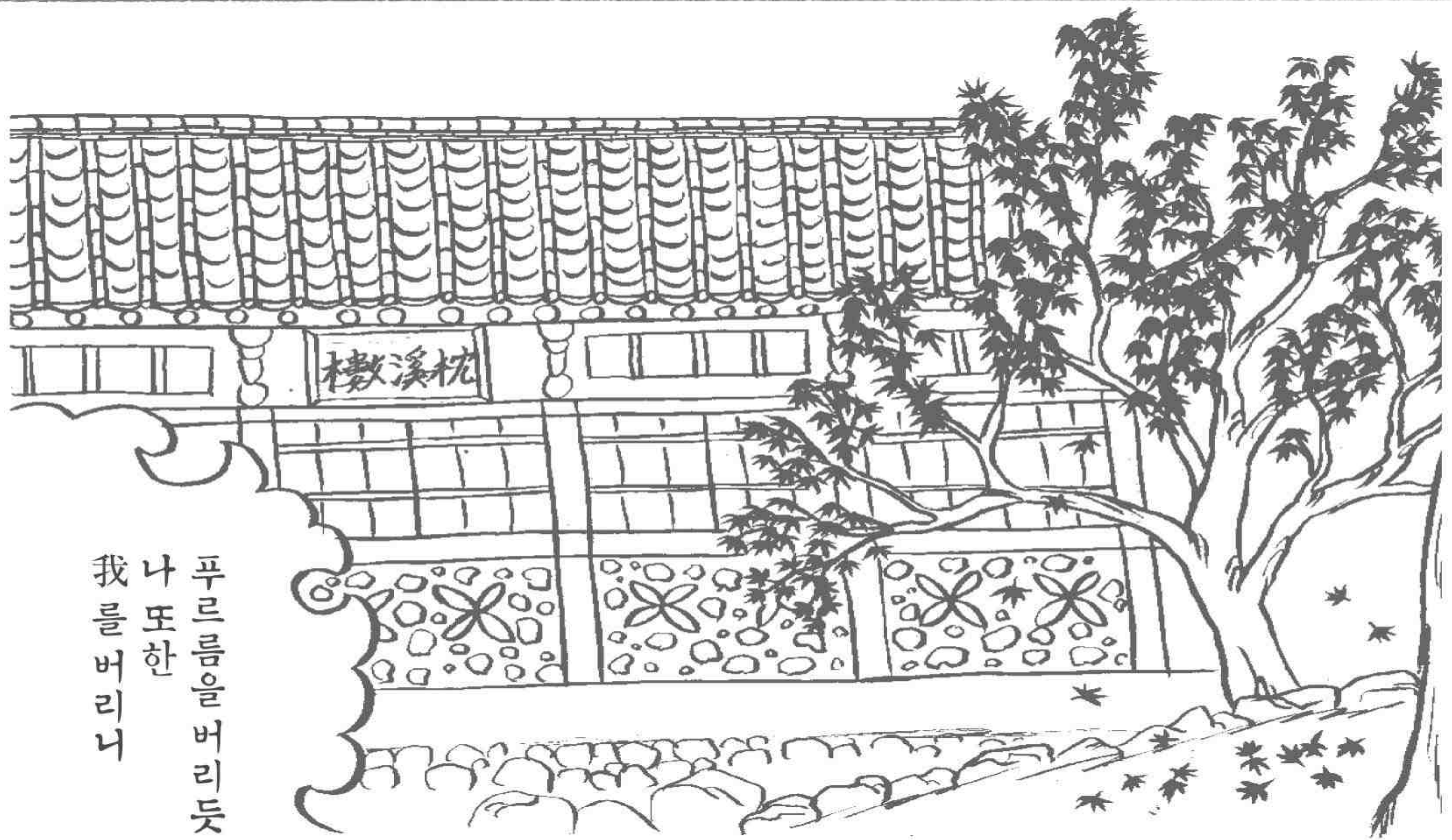
취재 | 편집실

목우만평

아상我相

글·그림 유신倣信 | 치문





푸르름을 버리듯
나 또한
이를 버리니

秋



남은 잎새마저도...

冬

너무도 소중한 삶

법공法空 | 사미

송광사 강원 사미반에 입방한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강원생활 하나하나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삼경 이후에 소등하고서도 선뜻 취침에 들지 못한 채 몸을 뒤척이며 “왜 하필이면 송광사로 와서 이 고생이람?” 이라고 수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께서 “강원 생활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으시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아뇨,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의 삶이 모두 고통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고통이 무엇인지 캄캄할 따름입니다.

출가하기 전에 저는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석 달을 넘게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팔과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까지 다쳤었지요. 온몸은 마치 미라처럼 붕대로 칭칭 감고 앉지도 못한 채 먹고 처리하는 일을 누워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심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로 겨우 몸을 의지하며 괴로움 때문에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오로지 바라던 소원은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었죠. 아픔만 가라앉는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구태여 극락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극락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아플 때의 헛된 꿈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심한 통증이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괴로울 뿐 전혀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병실에 누워만 있다 보니 답답함과 외로움으로 몸서리가 났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한결 위로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은 온통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볼 수만 있다면 앓은뱅이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이 회진을 할 때면 “저는 언제야 앉을 수 있죠?” 라고 묻고 또 묻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극락세계는 먼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창 밖 건너편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생각보다 빨리 허리가 나아져서 드디어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밖을 실컷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창 밖 어디에도 극락은 없었으며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앉아서 창 밖을 마음껏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작 창밖을 볼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이 그저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 창밖을 보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행복을 주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직접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때 정말 행복할 거야.” 휠체어를 탈 수만 있다면 그동안 궁금했던 간호사실도 구경할 수 있고, 1층 매점에서 먹고 싶은 과자도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으며 병원 주위를 산책하고, 가까운 오락실에 가서 오락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기만 한다면 원하는 곳 어디든 마음껏 갈 수가 있고, 그러면 구태여 두 다리로 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에게 행복이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 밖을 나가서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차츰 호전되어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된 뒤에도 저의 마음은 늘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한 삶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덕이나 계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요. 목발은 짚을 수만 있다면 언덕이나 계단도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탓은 목발을 짚지 못하기 때문이야. 돈이 많은 적든,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그것은 목발을 짚고 난 다음의 문제일 뿐이야.” 휠체어 타기를 항상 갈망하던 내 마음은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휠체어는 까맣게 잊은 채 목발을 짚을 날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입원한지 석 달이 지나자 저는 간신히 목발을 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발을 짚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절뚝거리며, 온 동네를 휘집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애타게 가보고 싶었던 어느 곳을 가보아도 저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농구와 축구도 할 수 없었고, 미팅도 나갈 수 없었으며,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꿈꾸었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루고 나니 그 또한 너무도 큰 고통에 불과했습니다. “목발 없이도 자유롭게 걸을 수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무엇을 더 바라겠어.” 저는 그저 공허한 욕심을 또다시 새롭게 만들뿐 지금껏 만족하며 사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젠 목발 없이도 새벽예불 끝에 108배 절을 할 만큼 멀쩡한 두 다리를 가졌지만, 여전히 강원생활이 힘들다고 마음속으로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부처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 생각 또한 어리석은 착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좀 더 자고 싶어서 눈을 비비적거리지만 이 순간엔 장님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예불할 적에 목소리가 작다고 꾸중을 듣지만 병어리에게는 극락 같은 모습이며, 절할 때마다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보지만 그 역시 앓은뱅이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삶일 테니까요. 이 순간순간은 너무도 행복한 삶인데 괜히 고통이라는 트집을 잡고 내 스스로 망상만을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닌지 조용히 반성해 봅니다. 定慧社

사물함

승범(僧範) | 치문

강원 지대방에는 어느 곳이나 갖춰진 것이 있으니 바로 개인 사물함이다. 언젠가 지대방에 있으면서 각기 범명이 붙은 개인 사물함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기에 적어 본다.

출가를 결심하고 곧바로 떠나온 것이 아니기에 속가 시절의 내 개인물품 정리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유가 있었다. 나름대로 살면서 하나 둘 구입하고 모아 두었던 물건들이 적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오디오, 노트북, 가전제품 등은 미련 없이 주위에 나눠주고 처분할 수 있었지만, 정작 애매하고 미련이 갔던 것은 아르바이트하며 작은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한 권 두 권 사두었던 책들은 쉽게 처분하기 어려웠으니, 서울과 전주에서 몇 번 이사할 적마다, 끽끔거리며 옮기고 날을 새 가며 정리했었던 손때 묻은 책들은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같이 공부했던 친구에게 넘겨주고 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마음을 써야만 했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물품을 정리하고 일주문에 들어서면서 신분증과 속옷이며 양말 몇 개를 가지고 출가했다. 산문에 들어 온지 이제 1년 남짓쯤 되었을까. 행자 시절에 입었던 옷이며 내의 양말이 이미 상자 하나 가득 출가 사찰 사물함에 쌓여있고, 현재 강원 치문반에 들어와 동안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가지게 된 짐은 더욱 늘어 사물함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해 상자 두세 개를 더 필요로 하게 되었으니, 강원 졸업 때가 된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세간에서 소유하였던 많은 물건을 버리고 몸 하나 부처님께 의지하며 수행하고자 결심 하고 출가 한 지 불과 1년 남짓한데, 어느새 이런저런 잡다한 물건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작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있어도 당장 필요치 않은 것도 많다.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점차로 가지게 되는 물건이 불어나게 되는데, 대개가 활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미련과 욕심에 여기저기 쌓아두곤 한다. 이는 아직도 탐착심에 대한 속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의 도연명은 세속의 부귀를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 하여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 배는 가볍게 흔들거렸다고 하니, 속인으로써 물욕에 대한 애착을 절연히 끊은 예가 아니겠는가.

출가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에게서 외적인 물욕을 버리고 내적 수행력 증진에 뜻을 두어야 하는데,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시주의 은혜를 잊고서 시주물을 함부로 하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더 가볍고 따듯하고 좋은 것에 애착을 끊고 헌 것이라도 알뜰히 꿰매고 기워서 입어야 할 것인데, 누더기 옷을 흉내 내어 입는다고 검소해 보이겠는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면서 앞선 선사들께서 쌀 한 톨과 헤어진 한 벌의 옷을 소중히 여기며 생활하던 의미를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定慧社**

참회와 청정수행

불각佛覺 | 사집

며칠 전 병원에서 신병치료 관계로 검진을 했더니 수치가 300이 넘는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결과라 믿어지지 않아 도반스님들에게 웃으면서 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걱정스럽지 않게 말을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속가 때부터 오랫동안 병고를 겪은 터라 그런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음으로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거나 눈이 갑자기 멀고 치아가 빠지는 등 심지어 여러 합병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은 완쾌가 없고 일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전 바로 윗반스님 한 분이 이 병으로 휴학을 하기도 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순간순간 절망감이랄까 불안한 생각이 스쳐갔다. 그러나 다가온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속인도 아니고 수행자로서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정리해야만 했다. 많은 생각 끝에 결론은 부처님께 오히려 감사하여야 할 일이고 그동안 나의 잘못되거나 부족했던 삶을 돌이키며 참회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속가 때나 특히나 수행자로서 미처 못다 버린 탐진치와 모든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결과이고 계행에 철저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죄업의 과보인 것이다.

당뇨가 있어서 그랬던지 유난히 허기가 지고 그래서 공양도 많이 먹고 음식도 가리지 않았으며, 음식에 많은 집착을 보여 방학 때는 청정치 못한 음식도 먹었다. 물론 의사선생님은 이 병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출가 후 여러 강원을 다니고 송광사 치문반을 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부터 모든 것에서 청정수행자로서의 바르고 절제된 삶과 수행력의 부족 때문인 것이다. 한마디로 부처님과 시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수행자로서의 몫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래도 당신 자식을 너무 사랑하시어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이 병을 이기려면 청정치 못한 음식 등을 멀리하고 수행자답게 적게 먹고 모든 계행을 지키며, 세속을 멀리하고 마음으로는 탐진치와 모든 것을 버리고 항상 자기를 놓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이다. 속인의 입장이라면 이것이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출가 수행인으로써는 오히려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따스한 미소가 느껴진다. 부처님께서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신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새삼 이 문중에 들어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러기에 이 병이 부처님 자식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살며 도업을 성취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자 경책으로 알고,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청정한 계행을 지키고 열심히 정진하여 병마를 이기고 도업을 이루어 위없이 위대한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퍼 몸과 마음에 고통 받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이 세상을 마칠 수 있기를 부처님께 참회하며 발원한다. 더불어 제 주위에 병으로써 지금 고통 받는 모든 분들과 특히나 스님들께서 열심히 청정수행정진하시어 그 공덕으로 쾌차하시고 도업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란다.

어느덧 송광사 강원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간다. 定慧社



특별대담

목우선원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스님(5회 동문)

‘죽음과 고통이 있기에 삶은 의미가 있다.’

본 강원 5회 동문이며 현재 명상상담연구원 원장이신 인경스님은 자아통찰 집단상담으로 삶의 변화성장을 도모하고 명상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하는 독특한 생활불교문화, 말하자면 불교수행론과 현대 심리학을 통합하여 개인의 수행을 돕는 새로운 수행포교분야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또한 보조사상연구원 실장으로서 부처사상 계승 및 보조국사사상 가풍연구개발에 앞장서며 한국불교의 중흥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금번 정혜사 제30호 특집 특별대담에서 전통강원체제에 대한 고견과 수행풍토에 대한 충언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선사상에 대한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기에 학인스님들에게 좋은 조언이 되리라 본다. -편집자주

지금의 강원은 예전과는 달리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의 강원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송광사 강원에서 살았던 시절이 다시 생각나고, 선배로서 책임감에 떠밀려서 대답하는 기분입니다. 우리 때도 강원 소식지를 만든다고 당시 덕현 스님이 애써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때는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도반끼리 많이 싸웠지요. 의사소통에 서로 익숙지 않고 무엇보다도 다들 의욕만 앞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데 소홀히 했어요. 지금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미숙하고 부덕한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불, 공양, 울력에서 오는 침묵은 저를 성장시키고, 승려생활에 기초가 된 점에서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승가교육 제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가교육 전체를 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행자, 사미와 비구의 구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은사와 제자라는 관점도 많은 지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습적인 헌법과 같은 조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제도들이 승가의 실질적인 교육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서 능력이 있는 승려가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도 알차게 채워지겠지요.

전통강원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나 운영시스템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 강원 제도는 매우 중요하고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될 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선은 강원생활의 기초가 되는 예불, 공양, 울력의 시간(6/24)은 여전히 엄격하게 지켜졌으면 합니다.

둘째는 교과목의 문제인데, 현재의 강원교재는 동북아시아의 종교 전통을 이어가는 핵심이 되는 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과목이 사라지면 곧 승가정신과 수행전통이 무너집니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강론시간을 활성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강원을 졸업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강원교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게 저를 일깨어줍니다.

셋째 현대적인 의미에서 외전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출가하면서 공부하고서 출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도 말해보려면 하나는 불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와 상담심리학 부분이 첨가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강원교재가 수행과 사상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기에, 역사적인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상담심리 공

부는 대중교화에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강원 학인스님들은 포교나 사회복지 등 외부 정보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졸업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들 말하듯이, 철저하게 인연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질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원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모든 것은 가슴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봅니다.

근래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나 재가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간화선 수행체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화선에 대해서 논쟁이 끊임없는데 현재의 강원교육이 선 수행의 기본이 되는 치문이나 사집을 보면서 초심자인 저희들은 간화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위빠사나나 수식관 등 남방의 수행이론에 더 관심을 갖고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한국 수행전통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이고, 직접적으로 당장 시급한 개인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화선은 자신의 궁극적인 본질을 묻는 수행체계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인지를 확철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에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고 의심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간화선의 수행체계는 돈오점수의 체계입니다. 이것이 중국 임제종이나 한국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에서 배우는 어떤 교재에도 돈오돈수를 주장하는 교과목은 없습니다. 보조의 『절요』나, 종밀의 『도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대혜의 『서장』이나 고봉의 『선요』도 역시 돈오점수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교에서 배우는 경전이나 논서들도 한결같이 돈오에 의한 점수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요사이 남방선이 유행하는데는 활발한 국제간의 교류의 결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간화선자의 책임이 큼니다. 간화선자들은 당송대의 문답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적합한 문답이나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문답을 한다고 해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근거도 없이 서로 억지 주장을 하여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선원에는 이미 문답과 점검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강원 시절에 더 많은 토론과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제가 보기에, 한국불교의 장래는, 강원이나 선원을 막론하고 스승과 제자, 혹은 도반사이에 사라진 문답과 점검 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원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위빠사나를 지도하는 분들은 처음 수행하는 분에게 개인적인 지도와 점검을 매

우 친절하게 봉사합니다. 간화선의 경우도 수행에 대한 점검과 문답은 그 성립의 근거인데, 이것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수를 강조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수행의 점검과 문답은 돈수가 아니라 점수에서 요청되는 가치입니다. 이 점은 심각하게 음미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행에서 발생하는 장애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월한가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자만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스님께서 강원을 졸업하시고 끊임없는 수행으로 교학과 선학을 겸비하시며, 또 명상상담원을 개원하시어 포교에도 진력을 다하시는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명상상담연구원에 대하여 소개해주십시오.

명상상담은 말 그대로 명상에 의한, 혹은 명상을 위한 상담을 의미합니다. 상담이란 문답과 점검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선과 명상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중요한 과업은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동시대인들의 아픔을 느끼고, 문답하고, 그 속에서 수행의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프로그램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상수행' 프로그램이고, 둘째는 '고집멸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셋째는 개인적인 성격을 진단하고 자기

의 성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는 '명상과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으로써 생생한 삶, 그 현장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속에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 귀감으로 삼는 글귀가 있다면 후학들에게 들려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치는 단박 깨닫지만, 일은 점차 이루어진다"는 대혜의 『서장』과 『능엄경』의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앞 구절은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후자는 나의 게으름을 경책하여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명상상담'에서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길 위에서 나 자신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한국 선불교가 수행풍토 재검토의 공론화를 겪으면서 많은 논쟁과 관심이 일고 있다. 남방불교의 유입, 티베트 등 근접한 대승불교의 수행법이 전래되면서 가히 전 세계 불교수행법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수행방편이 범람하는 가운데, 선불교 전통강원의 확인으로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갖고 섭수하며 또 한 어떻게 공부를 이어갈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각기 나름대로의 수행진로를 정하면서 인경스님의 애정어린 충언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定慧社**

취재 | 편집실

· 저술: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선사상 연구(1994년)〉
 〈불교의 해석과 실천〉(공저)
 〈화엄과 간화선의 만남〉
 〈애니어그램성격검사108문항〉

· 번역서:

(위빠사나명상) 〈단지바라보기만 하라〉(역서)

· 학위논문:

석사학위 - 普照의 定慧觀 研究(1994년)
 박사학위 - 蒙山德異 禪思想 研究(1999년)

· 연구논문:

「불타 탄생설화의 종교학적 의미」
 「마음의 해석학 - 지눌 선사상의 체계와 구조」
 「대혜 간화선의 특징」
 「몽산덕이의 염불화두법 성립에 관한 일고찰」
 「라말 화엄교단과 선종의 제문제」
 「덕이본단경의 선종사적인 의미」
 「화엄과 선의 돈교논쟁」
 「송대 임제종의 종밀 비판」
 「간화선의 화엄교학에 대한 비판」
 「견성성불에 관한 하택신회의 해명」
 「불교에서 자아의 의미」
 「초기불교에서의 사선과 지관」
 「선수행과 상담자 마음 보기」
 「위빠사나와 간화선」
 「간화선과 돈점문제」
 「지관명상과 자아초월심리치료」
 「유식불교와 인지치료의 통합적 접근」 등 21편



인경스님 행장

송광사 전통강원 5회 졸업
 동국대 선학과 대학원 석/박사
 송광사 강원 중강
 조계총림 사회국장 역임
 불일회보 주간역임

· 현재: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보조사상연구원 실장
 조계종 간화선지침서 간행연구위원
 불교상담개발원 자문위원
 동국대 강사

인경스님 연락처

명상상담연구원

- 전화: 02) 22325364, 22365306
- E-mail : khim56@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medicoun>

구업口業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히 말하리니 명심하고 잘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곧 성인의 말로다.
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말이 세 번째이며,
범답지 않음을 피하는 범다운 말이 네 번째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키사가 일어나 계송으로 찬탄하였다.

“말씀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 또한 해치지 않는 것을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하는 것
반드시 기쁨을 얻고 열반에 나아가리라.
착한 말씀 칭찬함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요
진리를 진실대로 말하는 것 최상이다.
진리에 부합하는 진실한 말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요
진실만을 말하는 이 착한 대장부다.”

별역잡아함경 제13; 253경;〈2-462중〉

잡아함경 제45; 1218경;〈2-332상〉

Wellspoken. <S. N, I. p-239>



백양사 강주스님을 친견하고

지운指雲 | 치문

동안거를 얼마 앞두고 장성 백양사를 탐방하게 되었다.

광주에서 백양사행 버스에 몸을 싣고 약 1시간 가량 지나서 백양사 계곡입구에 들어섰다. 고불총림의 명성에 걸맞게 뒷산 봉우리가 아담하고 수려하면서도 기암괴석의 웅장한 모습은 마치 설악산에 온 착각을 할 만큼 뛰어났다.

백양사에 도착해서 대웅전 부처님을 뵙고 원주스님을 찾아서 공양시간 예불시간 등을 물어 보고 강주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약속을 미리 하지 않고 왔는데도 다행히 저녁 예불 후 강원 학인스님의 안내에 따라 강주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스님의 첫 인상은 꼭 남루한 시골 농부 같은 모습이었다. 예를 다한 후 방을 둘러보았는데 2평 크기 방에는 작은 책상에 30권 남짓 책과 좌복 달랑 하나, 벽에는 태극기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 시대 청빈한 수행자의 본보기라 할 수 있을 만큼 검소하게 사셨다.

도반스님의 말로는 강주스님 손수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해우소를 매일 청소한다기에 설마 하고 쉬이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날 저녁 8시경에 해우소를 손수 청소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당신의 모습도 친견할 때는 잘 몰랐는데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굽어있었다. 뒤에 도반스님의 말로는 일체의 공양은 안 드시고 선식만 하고 장좌불와로 30년 수행하셔서 영양실조로 손톱이 다 빠졌고, 허리가 굽었다고 했다.

흔히 하심下心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옳게 하심하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 자신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이라는 말씀에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속세의 두터운 업식으로 갈 길이 멀고 먼 수행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시려는 간절한 말씀이 아닐까.

다시 한번 출가의 의미와 하심을 되새기게 한 백양사 강주 혜권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행자시절 외우던 계송 한 구절 적어본다.

신심으로써 욕락을 버리고
일찍 출가한 젊은 출가자들이여,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 대율사 우바리 존자 -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인법印法 | 사교

세상 일 번우하니 어디에도 마음 붙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 하는데 들려오는 세속世俗 이야기마저 소란스러우니 마음이 답답하다. 강산江山은 늘 변함없이 봄이 오건만 사람살이는 왜 이리 촌각을 두고 달라지는 것일까.

신문을 들춰보지 않아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활자 크기로 연일 엄청난 사건을 보도하며 사는 세인世人과는 달리, 앙상한 솔가지에 의지하며 사는 산승山僧일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입바른 세속 이야기는 가슴 아픈 단계를 넘어서 탄식만을 일으킬 뿐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살아가는 곳을 사바세계라 이름하여 부르니,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衆生인지라. 그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하염 없이 자유 자재함을 애써 흉내 내려함을 위선시 하는 것이다.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가히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가는 글일지라도 매 순간 한 글 한 문장 속에 무수한 과거 전생의 훈습薰習으로 인한 갈등의 쇠사슬이 얽혀있다. 세상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다. 그럴 일이 없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지만 모든 중생의 삶이 어찌 호락호락 마음먹은 대로 되겠는가 말이다.

‘想 생각 生 나는 竹은 대나무 뜻의 음 “대로” 筆 쓴 文 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셨던 분을 위해 우리가 늘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며 찬탄 발원하고 그 분을 닮아가려한다. 얼마 전 성도재일 때 강원에서 아침 7시에 매일 같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하는 상강례에 앞서 일 년에 한 번 밖에 안하는 상별례相別禮를 했다. 상별례란 4학년 대교반 스님들이 강원 전 과목을 마치고 남아있는 아랫반 스님들과 헤어질 때 잠시 일배一拜로써 눈물겨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날이다. 이 날은 정식으로 대교반 스님들이 종강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성도재일 인지라 오랜만에 강주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고인古人이 이르시기를 부처님께서 동녘에 솟은 셋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 보았던 저 달 옆의 셋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짝이고 있거늘 하물며 지금의 후학들은 아직도 반짝이고 있는 동녘에 솟은 셋별처럼 심안心眼(마음이 눈)을 뜨지 못하느고.”라고 말씀을 하셨다.

흐리멍텅하게 한 만민의 냇이라도 위로할까 싶어 눈에 비치는 푸르름을 따라 코끝이 시린 바람을 가로질러 정처 없이 흩어 자란 푸른 대나무 숲길에 접어든다. 그저 멀리서는 곧게 자란 나무들로 아름다운 능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숲길로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저마다 인연생因緣生·인연멸因緣滅 갖가지 병들어 쓰러진 나무와 곧게 자란 나무들이 한데 모여 묘한 조화를 만들어 내듯 중생의 삶 또한 어차피 중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힘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결이 만들어지듯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근본 고통인 팔고八苦의 힘든 고통사이에서 비로소 인간다워지는지도 모르겠다.

대교반 스님들이 비운 해청당으로 언 3년 동안의 힘들고 고귀하게 지켜왔던 모든 살림살이를 옮기며 관물장이 있는 지대방으로 들어섰는데 그 지대방 안에는 ‘인자무적仁者無敵(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 없다)’이라는 회주스님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때 도반스님 한 분이 앓따! “인자는 무자게 좋은 방 쓰는구먼!” 이라고 장난스럽기도 한 토속적 탄식을 자아내며 좋아했다.

또 이날 채식만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드시면 좋다는 고칼로리 두리안이라는 열대과일이 공양물로 들어왔는데, 좀처럼 흔치 않은 값비싼 것이라 원주스님께서 회주스님 시자를 시켜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긴 두리안을 시자스님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잘 손질해서 한 접시 냉장고에 랩을 씌워 가져다 놓았던 모양인데, 이 과일의 특성은 냄새야 둘째 치고 겉모습은 도깨비방망이 모양이요, 속 안은 잘 삶아 놓은 닭다리와 꼭 닮아 오해하기 십상이다.

이날 회주스님께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버럭버럭 화를 내시며 “벌어먹을... 왜 녀석이 말여! 냉장고에 통닭을 갖다 댔어 글썸!... 근데 말여! 그게 과일이라는 거야.. 허허- 참! 내가 이런 과일 어디 구경이나 해 봤어야 말이지!...응...?”

한 송이 연꽃이 깊이 베인 천진무구한 향음향품의 물결이 끊어질까 염려스럽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도 가슴이 벅찬 시간이다. 옛 시인의 마음처럼 이러하듯...

세상 사람들은 꽃의 빛만을 본다지만
나는 오직 꽃의 기운만을 본다오.
이 기운 천지天地에 가득 찬다면
나 또한 한 송이 꽃일 겁니다.

온 시방이 청정토록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처염상정處染常淨 하리라. 定慧社

• 팔고八苦: 생생·노老·병病·사死·애별리고愛別離苦·원증회고怨憎會苦·구불득고求不得苦·오취온고五取蘊苦

詩가 있는 풍경

지장보살

일웅—雄 | 치문

떠오르는 해는
만상을 내뿜고
기울어져가는 달은
세상을 머금는다.

허공계가 다하여도
그대원력 다함없고
억 만겁을 지탱해온 육환장은
중생업장 짓누르며,

눈 한번 깜박임에
열화지옥 얼어붙고
한빙지옥 불타버린다.

추악함에 광명구름 드리우고
보배연꽃 자비로서 싹을 낸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한바탕 춤을 추고
미소 지으며 삼악도로 뛰어드니
대지와 허공이 갈리도다.

나무과지옥보살 마하살.

석양夕陽

해동海東 | 치문

이제 내려놓아라.
광명이 어둠과 놀게 하여라.
한 파도가 또 한 파도를 내려놓듯이

그대는 추억의 낡은 울타리
흩어지는 줄기가
산 그림을 그리는 구나.

안팎의 쥐고 든 것이 너무 많아
사방이 부족 하구나.
그대 한손에 어둠을 들었으니
오늘 깊고 추운 검은 나락으로 들어가리라.

선우善友

인공仁弓 | 치문

일찍이 몰랐던 그리움이 샘솟을 때
머언 먼 숲길 마다얇고 깊고 깊은 물 속 주저않고
그대라 이름하기 전에 이미
오고 간 사이 없이 한 줄기 향기 남기더니
가는 속삭임 뒤로 자취를 감추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대는
참 좋은 벗이라네.

때로는 달콤한 맛으로 벗이 되고
때로는 맹렬한 불길로 벗이 되고
때로는 허투른 노래로 벗이 되고

날이 저물고 길가에 노닐던 아이들 모두 사라진 뒤에도
모닥불 피워놓고 한 몸으로 맞이하는
그대는
참 좋은 벗이라네.

두 손 모아 숙인 고개 작은 눈물 닦아주는
그대는
참 좋은 벗이라네.

三要와 衲子十病을 통하여 본 禪要

혜명慧明 | 사집

1. 서론

고봉스님의 놀랍고도 자상한 법문을 듣고서 내가 지금 이에 몇 글자를 적는다는 것은 반드시 허물이 될 줄을 알면서도, 만약 고봉화상께 이 자료를 제출한다면 몽둥이 30방을 얻어맞음을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방에 가서 정진하여 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와 선禪에 관한 지식도 짧은 편이어서 막히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초심자로서 선요禪要를 배우고 나서 일어나는 기쁨과 정진하고 싶은 마음과 용맹심 등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진실한 마음이니 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글로 표현하고자 한다.

2. 본론

참선수행을 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大信根, 大憤志, 大疑情이 그것이다.

첫째, 대신근이란 크게 믿는다는 뜻이니 이 참선수행이 한자리 수미산에 의지한 것과 같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본문에 언급된 바 있다. 위로부터 부처님과 조사스님들과 법을 이은 대선지식들의 모든 말씀이 한가지로 통하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이 비유하면 마치 물줄기가 달라 각각 도랑과 내와 강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물맛은 한결같은 것처럼 법의 解脫味도 또한 그러하다고 경에 일렀거나, 만약 이를 믿지 않고서 공부해 간다면 아무리 오래 해 나아간들 이익이 없는 것이다. 모래를 찌서 밥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며, 신심을 잃은 이를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고도 하였으니 이 말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분지란 크게 분노한다는 뜻인데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 곧 한칼로 두 동강을 내려는 뜻과

같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선요 전체에 통틀어 이와 같이 크게 분심을 발하여 정진하되 間斷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하고 경책하는 말씀이 도처에 엿보인다.

셋째, 대의정이란 크게 의심하는 마음이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건의 큰일을 터뜨려 은폐되었던 일을 막 폭로하려고 하는 때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의심하는 마음이 성성하여 간담함이 없어야 한다고 고봉화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선지식들이 누차 강조하였던 바, 이 의정이 없으면 無記空에도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 衲子들이 한 순간도 이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과도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상의 공부 가운데 과연 능히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기한 내에 功을 이루어 독 안에서 달리는 자리를 놓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으나 진실로 그중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비유하여 다리 부러진 삼발이 솔이 마침내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학인이 공부해 나감에 있어 이三要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은 이미 명백해졌으니 다음은 열 가지 禪客의 병폐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것은 참선수행에 있어 앞의三要와 더불어 고봉스님께서 자상하게 本分衲子들에게 방편을 베푸시어 그와 같은 妄念들이 참으로 공부를 해 마치는 데에 있어 불치병이 되지 못함을 일깨우시는 것이다. 열 가지 병폐를 열거하여 論하자면 첫째, 宿世에 닳았던 지혜를 말하고 있다. 물론 속세의 불법인연도 없이 불법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었지만,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경에 일렀으니 그 누가 불법을 닳지 못하겠으며, 본래부터 부처라 하였으니 존귀하지 않은 이 누가 있으랴. 다만 무명이 뿌리 깊게 결박되어三界에 얽혀 있으니 고질병은 과연 어디에 있겠

는가.

둘째,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말하고 있다. 참으로 밝은 스승이라 함은 외부에 주어진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이가 반드시 어떤 정해진 인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자성을 밝히는 공부자리에서 바라본다면 밝은 스승이거나 아니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내 공부를 대신 해 줄 수 없고 내 공부는 오직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질병이 진실로 이 자리에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하루 공부하고 열흘 놀았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결제와 해제라는 말에 속지 않고 정진해 나간다면 문득 해결될 것이다. 이 또한 불치병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 근기가 下劣하고 의지가 박약함을 말하고 있다. 저마다 아직은三界를 뛰어나지 못한 범부인지라 수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행의 本意를 망각한데서 기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수행자가 발심하여 정진하다 보면 수행의 완성에 언제 도달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아니면 퇴굴심을 내면서 자신의 근기가 下劣하다고 생각을 내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근기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만약 한 걸음을 정진해 나간다면, 수행공덕으로 한 걸음만큼이나 부처님과 닮아 가도록 되어 있으니 분심을 일으켜서 용맹스럽게 정진해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티끌번뇌에 깊이 빠져 있음을 말한다. 衲子가 자기 자신이 번뇌 망상에 젖어 있음을 안다면 곧 이는 번뇌를 破할 수 있음이니 이곳에도 역시 불치병은 있지 않다.

여섯째,空에 빠져 고요함에 막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고요하면서도 화두가 星星한가 아니면 고요하긴 하되空에 빠져 막혀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疑情이 없으면 대개 無記空에 빠지기 쉬운데, 하지만 거듭 밝혀 말하니 화두를 間斷없이 잘 들고 있는 衲子라면 이런 데에 떨어질 염려가 어디 있겠는가. 고로 불치병은 여기에도 없는 것이다.

일곱째, 잡된 생각이 마음속에 침입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봉스님의 開堂普說에서 '만길 절벽에 선 듯 절박하게 당장 공부할 것이며 本을 의지하여 곧바로 고양이를 그려가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려가다 마무리 되는 곳, 心識의 길이 끊어진 자리, 나와 경계가 함께 사라진 곳에 도달하게 되면, 붓 끝에서 갑자기 산 고양이가 튀어나오리니 본디 땅 전체가 選佛場이며 온 땅이 곧 자기라.' 하였으니 고봉스님의 인용한 말씀이 곧 한편의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여덟째, 시절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시절인연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가르침을 만나야 성불하는 것으로 아는 것인데, 『금강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처님이 어느 결정된 법이 있어서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설하고 있다.

어느 결정된 법이 없이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시절인연이라는 것도 방편법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지만, 見性成佛하는 이 자리에서는 떼땃함이 없는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고 허공의 메아리와도 같은 줄을 알 것이다. 도대체 불치병이 어디 있는가.

아홉째, 화두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라 하지만 衲子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얼마 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몸도 목숨도 돌아보지 말라 했거늘!

열째,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망어 중에 대망어로서 얻는 죄가 심히 무겁다지만, 아무리 죄가 무겁다 하더라도 설사 죄의 과보로 지옥을 백천만번 오간다 하더라도 죄의 자성이 있지 아니하니, 이것도 단지 허공 속의 메아리이다.

3 결론

이상으로 三要와 열 가지 禪客의 병폐를 통하여 禪要를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지만 고봉스님께서 진실로 禪客들의 불치병을 염려하시어 법문을 설하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진정 불치병은 어디에 있는가. 문자의 본바탕이 본래 空한 것이니 문자가 없는 것이 곧 해탈이며 해탈의 모양이 곧 모든 법인 것이다. 定慧社

몽산법어 夢山法語(영역) 5

해안海眼 | 대교

蒙山和尚無字十節目 몽상화상蒙山和尚 '무' 자無字 10가지十節目
Master Mongsahn's Ten Junctures of Mu

원문)1. 僧이 問趙州호대 狗子도 還有佛性也이까 無이까. 州가 云호대 無라하시니. 蠢動含靈이 皆有佛性이어늘 趙州는 因甚하야 道無오. 若言趙州禪을 口皮邊으로 照顧인댄 他日에 喫鐵棒하리라.

한역) 승승이 조주께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이르되 「무無」라 하시니 구물구물하는 중생이 다 불성이 있거늘 조주는 무엇을 인하여 「무無」라 일렀는고? 만약 조주선을 구피변口皮邊으로 살펴보면 언젠 타일他日에 쇠방망이를 맞으리라.

영역) A monk asked Joju, "Does even a dog have Buddha nature?" Joju said "Mu." All living beings have the Buddha nature, so why did Joju say Mu? If you say that you can investigate Joju's Zen with your lips, on another day you'll be in for a beating.

2. 殊不知三世諸佛의 骨髓와 歷代祖師의 眼目を 一期에 掀出하야 在爾面前이로다. 性燥漢¹⁾이 一肩에 擔荷得去하면 山僧의 柱杖子로도 亦未肯打爾在하리니 且道하라. 畢竟에 如何오.

삼세제불의 골수와 역대 조사의 안목을 한 번에 드러내어 네 면전에 둔들 곧 알지 못하도다. 성조性燥한 사람이 한 어깨에 매어 가면 산승의 주장자로도 또 그를 치고서 아니하리니 또 일러보아라. 마침내 어떠한고?

You don't know that the marrow of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and the eye of the patriarchs is at once displayed before your eyes. If a sharp and talented man were to shoulder this burden and head on, not even this mountain monk's staff could hit him. So tell me, at the end of the day, how is it?

3. 只這箇無字가 全無巴鼻호대 有些巴鼻²⁾하니라. 或者는 謂호대 是는 斷命刀子이며 開差別智³⁾底 鑰匙라하나니 好與三十棒이로다. 是는 賞耶아, 罰耶아. 直饒道得諦當하야도 爾在甚處하야 見趙州오.

자못 이 무자無字가 전혀 끝코가 없으되 조금 끝코가 있나니라. 혹자는 이르되 「이것은 목숨을 끊는 칼」이라 하며 「차별 지혜를 여는 열쇠」라 하나니, 삼십 방을 침이 좋도다. 이는 상인가 별인가? 비록 옳게 이르지라도 네 어디에 있어 조주를 보았는고?

1)성조한性燥漢 : 재기才氣가 팔팔 날리는 놈. 날카롭고 밝아서 뛰어난 놈.

2)파비巴鼻: 파바는 잡는다는 뜻이요, 비鼻는 소의 코에 끈을 꿰어서 손을 잡는다는 뜻으로, 轉轉하여 요점, 손잡을 곳, 또는 증거 등의 뜻이 있다.

3)차별지差別智: 차별기연差別機緣에 자유자재한 지혜(P 차별기연 참조).

This word Mu has absolutely nowhere to grasp, just a slight place to grab hold. If one were to say that it is a knife that takes lives, that it's a key that unlocks discriminating wisdom, I'd gladly give them thirty blows. Is this a prize or punishment? Even if you answer me correctly, where have you been in order to see Joju?

4. 盡道호대 趙州古佛⁴⁾의 眼光이 燦破四天下라하니, 觀其道箇無字하건댄 性命이 落在本色衲子⁵⁾手裏어늘 有一等人이 更向他無字上하야 討滋味하나니 豈不鈍置平生이리오.

다 이르되 「조주 고불의 눈 광명이 사천하四天下를 비춘다.」하니, 이 무지無字를 이룬 곳을 보건댄 성명性命이 본색衲자의 손안에 떨어져 있거늘, 한 무리 사람이 다시 저 무지無字를 향하야 자미를 찾나니, 어찌 평생을 어리석게 보냄이 아니리오?

Everyone says that the light in Old Buddha Joju's eyes shines under the heavens, observing his Mu, its life has fallen in the hands of this accomplished ascetic, if anyone were to take up this word Mu and seek any taste, how could they not live out their days in ignorance?

5. 雖然이나 趙州道흔 無를 爾는 作麼生會오. 趙州露刀劍이 寒霜光焰焰하니 擬議問如何하면 分身作兩段하리라. 噯 癡人面前에 不得說夢이니라.

비록 그러하나 조주가 이룬 「무無」를 너는 어떻게 아는고? 조주의 날랜 칼에 찬 서릿빛이 이글이글하니 헤아려 「어떠한고?」 묻는다면 몸이 갈라져 두 동강이 나리라. 「할」하고 이르시되 「우치한 사람 앞에 꿈 이야기를 말지니라.」

Even so, how do you understand this Mu of Joju's? Joju's drawn blade gives off a cold frosty sheen, if you deliberate and ask how, it'll slice your body in two. HA! In front of an idiot, don't talk about your dreams.

6. 要且我王庫內엔 無如是刀하니라. 畢竟에 趙州는 是何面目고 妙喜⁶⁾道호대 不是有無之無이며 不是眞無之無라하니 還識妙喜麼아. 若不具眼하면 又去東卜西度하야 轉添意識하리니 切忌切忌니라. 靈利漢은 且道하라. 趙州意는 作麼生고.

또한 우리 임금 창고 속에는 이런 칼이 없느니라. 마침내 조주는 이 어떤 면목인고? 묘희화상이 이르되 「이 있다 없다 하는 무無도 아니며 이 진실로 없다 하는 무도 아니니라.」하니 도리어 묘희를 알겠느냐? 만약 눈을 갖추

4)고불古佛: ①과거제불의 약어略語. ②덕 높은 스님을 존경해서 쓰는 말.

5)본색衲자本色衲子: 본분납승本分衲僧과 같은 말. 새로 닦을 것 없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도리를 깨달아서 그러한 입장을 견지堅持하는 납승.

6)묘희妙喜: 경산종고徑山宗杲(1089~1163). 법명은 종고, 자는 대혜大慧, 법호는 묘희妙喜이며, 속성은 해奚씨. 안휘성安徽省 선주宣州 영국현 寧國縣에서 났다. 십칠세에 출가하여 선주의 명교明教 선사에게 가서, 깨친 바가 있는 뒤, 조동종의 장로들께 많이 찾아 다니다가 변경汴京의 천녕사天寧寺에 가서 원오선사의 법을 받아 가지고, 경산의 능인사能仁寺에서 크게 교화하였다. 그때 나라의 정사를 비평하였다는 혐의로, 형주衡州에 귀양갔다가 또 얼마뒤에 매주梅州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를 따라 갔던 백여명의 제자 가운데 반수 이상이 그 지방의 풍토병으로 죽었다. 열일곱 해 만에 석방되어 다시 경산과 아육왕산 광리사阿育王山廣利寺와 전당錢塘의 영지사靈芝寺, 건강建康의 보령사保靈寺 같은 여러 곳에 있다가, 송나라 효종孝宗 융흥隆興 일년에 칠십오세로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정법안장正法眼藏> 六권, <대혜어록大慧語錄> 三十권, <법어法語> 三권, <대혜보각선사보설大慧普覺禪師普說> 五권, <종문무고宗門武庫> 一권, <서장書狀> 二권 등이 있고, 법을 이은 제자가 구십여 명이 있었다. 그가 교화한 가운데 특히 애쓴 것은 천동정각天童正覺이 주장한 묵조선黜照禪을 부수어 버리고 활구活句 참선을 강조한 것이다.

지 못하면 또 동東으로 생각하고 서西로 헤아려 더욱 의식意識을 더 하리니 부디 그러지 말지니라. 영리한 사람은 또 이르라. 조주의 뜻은 어떠한고?

Moreover, in the king's stores there's no blade like this. At the end of the day, what is Joju's original face? Miaoxi said that it is not the Mu of existence or nonexistence, nor is it the Mu of true nonexistence. So, do you understand Miaoxi? If you are not endowed with the eye, you'll go deliberating east and contemplating west, amassing more and more knowledge. Don't, don't. Someone sharp, tell me, what did Joju mean?

7. 近來에 多道호대 無字가 是鐵掃箒라 하나니 趙州意는 果如是아. 不야 有引他後語하야 爲證者하니 錯了也瞎漢이로다. 莫將閒學解하야 埋沒祖師心이이다. 喝

근래에 많이들 이르되 「무자無字가 이 쇠빗자루」라 하나니, 조주의 뜻은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다른 후어後語를 끌어다가 증명을 삼는 자가 있으니, 그릇 안 눈먼 놈이로다. 부질없이 배운 알음알이를 가지고 조사심을 물어 버리지 말이다. 할!

Recently many people have been saying that Mu is a steel broom. Was this really Joju's intention? There are some who cite other later sayings as proof. They are deluded and blind. Don't take intellectual knowledge and bury the mind of the Patriarchs. HA!

8. 有云호대 無字는 是繫驢橛이라 하나니 爾在何處하야 夢見趙州오. 欲得不招無間業인댄 莫謗如來正法輪이니라. 許多弊病을 都拈去也호니 畢竟에 這箇無字는 落在甚處오.

어떤 사람이 이르되 「무자無字는 이 나귀 매는 말뚝」이라 하나니, 네 어디에 있어서 꿈에나 조주를 보았느냐? 무간업無間業을 불러들이려 하지 않을진댄 여래의 정법륜을 비방치 말지니라. 허다한 그르치는 병을 다 걷어버렸으니, 마침내 이 무자無字는 어느 곳에 있는고?

Some say that Mu is a post for tethering a donkey. Where have they seen Joju? In their dreams? If you don't want to bring upon yourself an eternity in hell, don't slander the Tathagata's True Dharma wheel. I've touched upon many diseases, but at the end of the day what does this word Mu mean?

9. 這箇無字는 有心과 無心으로 俱透不得하나니라. 棄命하고 向未舉已前하야 着眼하야 忽然再甦하야 了徹無餘하면 一千七百則公案을 誰敢向爾面前하야 拈出하리요.

이 무자無字는 유심有心과 무심無心으로 다 사무치지 못하느니라. 목숨을 버리고 들기 전을 향하야 착안着眼하야 문득 다시 소생하야 남음이 없이 사무쳐 알면, 천칠백칙 공안을 누가 감히 네 면전을 향하야 잡아내리오?

This word Mu cannot be penetrated with mind or with no-mind. Throw your life away and head for the place before it arises, fixing your sight, and you will suddenly come back to life. When you penetrate to the point where there's nothing left, who can dare to pick up the 1700 kongans in front of you?

10. 諸佛祖의 大機用인 神通三昧와 三玄⁷⁾ 三要⁸⁾와 種種差別智와 一切無碍慧가 盡從此出하나니라. 雖然이나 那箇是爾의 自己오.

모든 부처와 조사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인 신통과 삼매와 삼현三玄과 삼요三要와 종종차별지種種差別智와 모든 걸림이 없는 지혜가 다 이를 좇아 나왔느니라. 비록 그러나 어느 것이 너의 자기인고?

The great artifices and functions of the Buddhas and Patriarchs, the spiritual powers and samadhis, the three profound teachings and the three essential teachings, all types of discriminating wisdom, and all unobstructed wisdom all come from this. Even so, what is your real self?

11. 一大藏教가 是箇切脚이 어니 曾切着者箇無字否아. 靈利漢이 直下掀翻하야 洞明自己하야 捉破趙州하야 勘破佛祖의 得人憎處하면 許爾道大藏教가 是拭瘡疥紙호리라. 雖然如是나 者箇無字는 從何處出고

일대장교는 이 간절히 주각註脚한 것이니 일찌기 이 무자無字도 주각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영리한 사람이 바로 뒤쳐서 자기를 통명洞明하야 조주를 잡으며 불조의 사람에게 미움 산 곳을 감파勘破하면 네가 대장교를 「괴고름 씻은 종이」라고 이름을 허락하리라. 비록 그렇기는 이와 같으나 이 날 무無자는 어느 곳을 좇아 나왔는고?

The Sutras are an earnestly left footprint, was this Mu also left behind or not? If someone sharp immediately turns it on its head sees himself clearly, defeats Joju and sees the point where the Buddhas and patriarchs arouse the anger of men, I'll allow him to say that the Sutras are just tissue for wiping away blood and pus. Even so, where does this word Mu come from?

12. 如是主張箇無字커댄 有甚奇特고. 宗門中에 許多公案이 還有要妙가 過此無字者否아. 若有인댄 何得如是品題⁹⁾他하며 若無인댄 未有趙州時엔 豈無佛祖리요. 具眼衲僧은 一點難謾이니 速道하라.

이와 같이 이 무자無字를 주장하건대는 무슨 기특함이 있어서인고? 종문 중에 허다한 공간이 도리어 요긴하고 묘함이 이 무자無字에 지낸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있을진댄 어찌 이와 같이 저를 차등하야 논량하며 만약 없을진댄 조주 있지 아니한 때에는 어찌 불조佛祖가 없었으리오? 눈을 갖춘 납승은 한 점도 속이기 어려우니 속히 일러라.

I advocate this Mu in this way, but what is so special about it? In this sect a great many Kongans are essential and mysterious, but do they surpass this Mu or not? If they do, why is it esteemed in this way, if they don't, how can there have been Buddhas and Patriarchs before the time of Joju? An ascetic endowed with the eye will be difficult to deceive in the slightest. Speak quickly! 定慧社

7)삼현三玄: 체중현體中玄· 구중현句中玄· 현중현玄中玄. 체중현은 삼세가 한 생각이라는 따위들이며, 구중현은 경절언구經載言句 등이며, 현중현은 양구良久· 방棒· 할뭇 같은 것들이다.

8)삼요三要: 대기大機· 대용大用· 기용동시機用同時를 말한다. 一요의 대기는 원응圓應으로써 의義를 삼고, 二요의 대용은 직절直截로 의義를 삼으며, 三요는 기機와 용用이 동시이다.

9)품제品題: 어느 사물을 문예적 표현으로 가치를 평하는 일..

금강산 신계사를 다녀와서

혜덕慧德 | 사교



말로만 듣던 금강산 신계사를 대웅보전 낙성식에 참석하시는 어른스님 시봉하는 인연으로 2박 3일간 다녀오게 되었다. 마침 가을산철 해제기간 중에 회주스님 시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모시고 다녀오고 싶다고 은사스님께 말씀드리자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조계사에 도착해보니 길 건너편에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 순례단'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행사버스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후 차안에 들어서자 비치되어있는 금강산 안내 책자에서 신계사의 창건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았다.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6년(519)에 보운普雲스님이 창건하셨는데 보운스님이 이 절을 지을 때 계곡에서 물고기 떼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의 도량은 가장 청정한 법계인데 어찌 물고기가 있어 냄새가 진동하는가'라고 생각하시고는 이에 방편으로 주문을 써서 고기떼를 바다로 몰아내었다고 한다. 그 후에도 계곡물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지만 고기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사찰의 명칭이 새로운 계곡[新溪]에서 신령스런 계곡[神溪]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신계사는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와 더불어



송광사 회주스님, 주지스님과 함께

금강산의 사대명찰의 하나로 불리는 유서 깊은 가람으로 근세에 석두선가가 효봉선사에게 법등法燈을 전한 곳이기도 한 신계사는 해방 전 21동에 이르는 당우와 8개의 산내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이쉽게도 6.25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얼마 후 순례단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금강산콘도에 도착하여 관광증 수령과 반입금지 물품을 일괄수거 보관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남측 CIQ(출입경사무소)로 이동하여 순서를 기다렸다가 세관검사 및 출국 신고를 마치고 현대에서 직접 제작한 33인승 행사버스로 남측CIQ를 출발하였다.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측 CIQ를 거쳐 금강산 문화 회관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번의 관광증 및 소지품 검사를 엄격히 거치고는 오후 6시쯤에야 도착하였다.

이윽고 금강산관광 6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뒤 북측의 예술단인 '평양모란봉 교예단'의 특별공연을 관람하고 금강산호텔로 이동하여 방 배정을 받은 뒤 다음날의 일정을 생각하며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북쪽에서의 첫 날밤을 보내고 신계사 '대응보전 낙성식'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설렘으로 일찍 일어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북녘 땅을 천천히 밟아 보았다. 오전 8시쯤에 호텔 앞에 집결하여 행사버스로 십 여분 이동하자 신계사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서 부처님 점안의식은 원로의원 종산, 활안, 천운 큰스님을 증명법사로 하고 집전에는 총무부장 무관스님이 진행하였고, 은사스님의 사회로 대응보전 현판 제막

식을 갖고 경과보고 및 통일기원문 낭독, 풍경 제막식이 있었으며 사홍서원을 끝으로 낙성식을 마치고 대응보전 참배 및 기념촬영 시간이 주어졌다.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간간이 꽃비가 내리다가 중간에 거칠게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행사는 차질 없이 치러졌으며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었다. 이번 '신계사 대응보전 낙성식'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 지역에 우리의 전통 사찰의 복원과 남측스님(도감 제정스님)이 상주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낙성식을 마친 후 금강산을 지키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구룡연을 구경한 뒤 오후 6시 30분 금강산 호텔 2층에서 신계사복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진명스님의 사회로 열렸는데 즉석에서 4억여 원의 후원금이 불사되기도 했다.

돌아오는 날 오전 8시에 모든 짐을 챙겨 조별로 행사버스에 탑승하여 삼일포 해금강을 구경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해금강을 북측 안내원의 자세한 소개를 받고서 다음에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자는 먼 기약과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서울로 향했다.

바위산인 봉래대에 오르자 예부터 관동팔경의 하나인 이름난 호수로서 그 풍경이 으뜸인 삼일포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하여 와우도臥牛島라 붙여졌으며, 동해안에 펼쳐진 해안가의 기묘한 절벽과 소나무가 우거진 많은 바위섬들을 뒤로 하고 지난 3일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많은 상념이 스쳐지나 갔다.

정말 북한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은사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쉽게 왕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신계사 복원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定慧社〕**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9월 1일~22일 제 27기 행자교육

출가사문의 첫걸음. 신심과 원력으로 보배 구슬처럼 여기시고, 앞으로의 수행길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0월 16일 가을산철 원족산행

광주 무등산을 넘나들며 진땀 빼기도 했지만 명산의 힘찬 기운에 매료되어 한껏 호연지기를 논할 수 있었습니다. 기암괴석으로 병풍을 두른 규봉암은 좋은 도반과 다시 찾고 싶습니다.



10월 20일 친선축구대회

조계산 선암사와 축구경기~ 아아! 체력의 열세로 패배했지만 본 강원 스님들의 활기찬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0월 25일 강원연합 체육대회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승가학인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리그전을 치른 축구경기에서 고귀한 1승. 그토록 갈망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타 강원과 함께 어우러져 응원하는 화합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이날 우리 송광사 강원은 응원상을 받았습니다.



11월 1일 삼일암 기와운력

하나 둘 나르는 손길마다 오종대은명심불망. 도업을 이루기 위해 하루의 땀을 헛되지 않겠습니다.



11월 6일 제1회 불교문화축제

조계총림 송광사의 전통을 재가신도는 물론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보조국사 불감과 16국사영정 이운식은 금번 축제의 백미였습니다.



11월 24일 무운력

한 철 맛있게 자라나서 사중 전 대중에게 보시할 무들아. 정말 고맙고마!

12월 7일~9일 김장 운력

매년 찾아오는 설레임. 김장배추의 싱그런 내음과 양념의 매콤한 향기가 도량에 가득하고 운력하는 대중스님들의 얼굴엔 환한 도반애가 피어오릅니다.



12월 20일 동지 새알 운력

동지를 맞아 사중 전 대중이 큰방에 모여 팔죽에 쓸 새알을 빚었습니다. 새내기 치문반 스님들이 빚은 새알이 꼭 탁구공만 합니다.



12월 24일 구산스님 21주기 추모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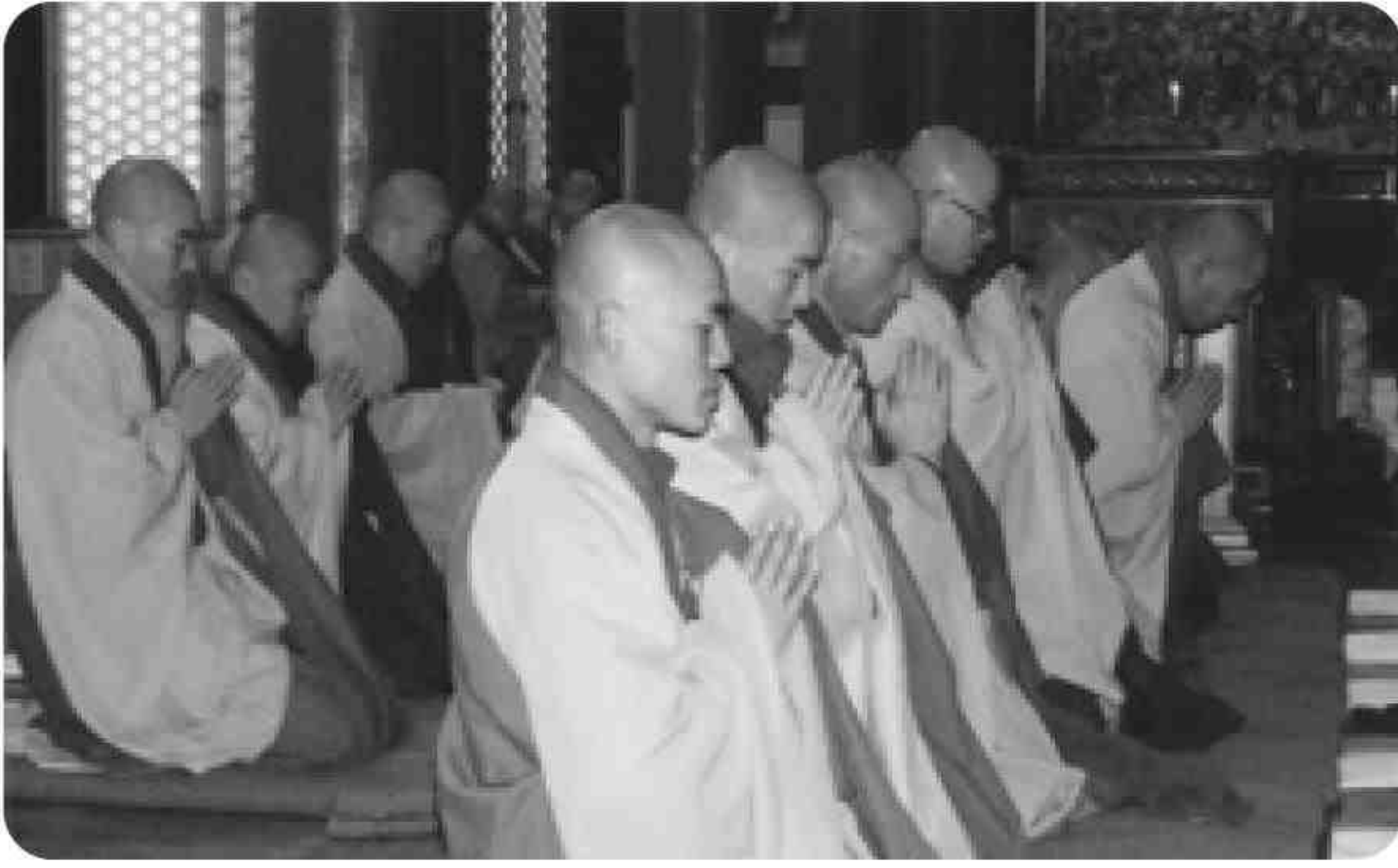
함박눈이 온 누리를 덮는 가운데 구산스님 추모법회가 열렸습니다. 스님의 간절한 가르침이 눈송이에 타고 모든 이의 어깨에 내려앉는 듯합니다.



1월 5일 중론특강 - 동국대 김성철 교수

예리한 논리의 칼날에 어설픈 희론은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성찰의 계기였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1월 10일~17일 자비수참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남김없이 참회하고도 새록새록 자라는 번뇌의 싹들. 기어코 모두 뽑으오리다.



1월 18일 동안거 원족산행

전남 고흥에 있는 팔영산을 등반하고 능가사를 방문했습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탁트인 남해의 풍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월 24일 대교반 졸업여행

즐거운 여행! 4년간의 강원생활을 마치고 부처님의 성지인 인도로 회향길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마음의 등불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8일 자비의 탁발

전남 광주지역 4본사협의회 주최(동남아 해일피해 이재민돕기)탁발행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학인스님들의 한결한결이 모여 조금이나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꽃꽂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능인스님 061)755-5302

강의(특강) 테잎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잎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세트 테잎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50,000원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 | 25,000원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해거스님 · 도덕경 16개 | 23,000원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지장

☎061)755-5302(전화주문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1676-01-001557 송광사 지장

테잎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총무원장 스님·대구 서봉사·통영 미래사·서울 길상사·광주 증심사
·통도사 백련암·부산 관음사·부산 내원정사·구산문도회·화진스님
·서울 박정련화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은해사 운부암·봉녕사승가대학·부산 관음사·곡성 성륜사·음성
광명사·서울 길상사·통도사 백련암·과주 신륵사·과주 법화사
·논산 금용암·화순 만연사·광주 원각사·제주 불일회·강원 후원회
·광양 지혜장님·대자행님·인애원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송광사강원 총동문화·진경스님·곽미숙님·김갑숙님·동은미님
·김현정님·안희동님

「정혜사」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 출판물로서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송광사 강원과 인연을 함께하며 여러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호평과 격려, 그리고 질타와 충고 속에서 출판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9호의 발간과 함께 내부 사정상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는 앞으로의 발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 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10여 년의 세월은 어느덧 한밤의 꿈속에 묻혀갑니다.

무엇을 얻고자 걸어온 길은 아니겠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적어 마침은 일 없이 지내온 듯 아쉬울 뿐입니다. 함께 땀 흘렸던 분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모두 회향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단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 마음 전합니다.

갑신년 동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問爾禪和墻壁意 非心非道是甚麼
直須密密參詳去 始息諸緣見達摩

너희가 선방에 앉아 있는 뜻을 묻는다.
마음도 길도 아닌 그 무엇인가
바로 오묘한 마음을 잘 살펴
반연을 끊으면 달마를 보리라.

- 방장스님 법어 中 -



清涼閣 欄에 올라 興에 겨워 노래하니
물소리 솔소리가 가락 마취 풍류인데
어찌다 이 좋은 풍악 知音없어하노라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